

리아호나

가족을 강화하는 아홉 가지 방법, 26쪽

목적이 있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 38, 48쪽

나쁜 영화 딜레마, 60쪽

나는 침례 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66쪽





제 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고 썼다. 이 선언문에는 결혼 생활과 가족을 강화하는 아홉 가지 원리인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이 열거되어 있다. 이 아홉 가지 원리 각각을 확실히 이해하고 싶다면 26쪽 기사를 참조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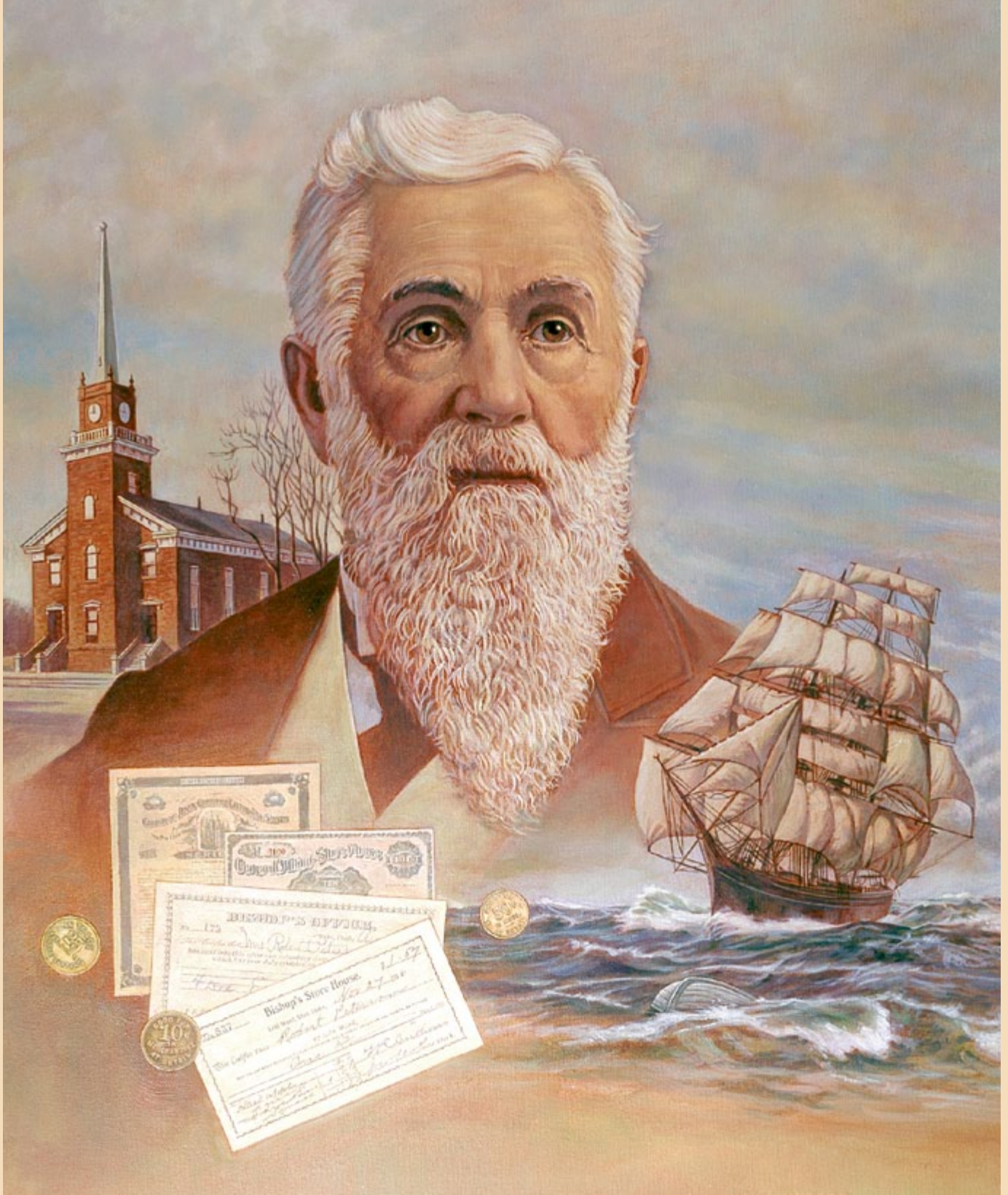


4
0210786320
10786 320
3



“결혼은 다른
어떤 인간
관계보다도 더 큰
행복의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결혼
생활을 보살핌”,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6쪽.



성화: 로버트 티 버넷

로렌조 스노우

로렌조 스노우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가던 중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로렌조는 주님을 신뢰했으며, 목숨을 구했습니다. 1899년에 **세인트 조지 태버네클**에서 말씀할 때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가르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회원이 십일조를 내기 시작하자 교회의 재정이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성도들은 돈이 있을 때는 현금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달걀, 우유, 가축을 십일조로 바쳤습니다.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제자리에서
멈들지 않으려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가족 역사에서
얻는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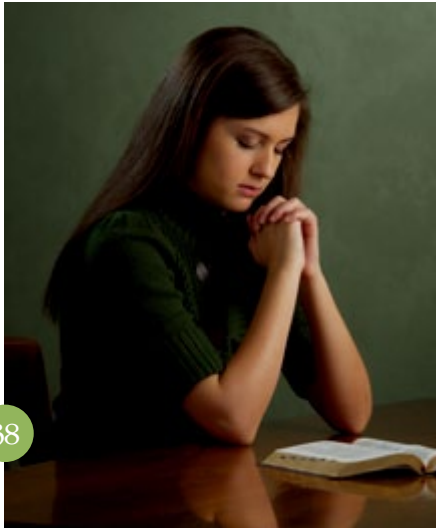
특집 기사

- 14 길을 잃고 헤매는 소중한 양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 22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
리차드 엠 롬니
최근의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메시지는 개인과 가족, 와드,
스테이크를 축복하고 있다.
- 26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가족을 위한
아홉 가지 원리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가족 선언문의 원리는 어떻게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교회 본부 기사

- 8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베키 스콰이어
- 10 복음 고전: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
- 13 교회에서 봉사하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
베키 영 포셋
- 34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섬 주민들의
신앙
조슈아 제이 퍼키

표지
앞 표지 사진 삽화: 뒤 표지 사진 삽화:
앞 표지 내부 사진: 저스틴 존 소터 퀴스트



38

38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개인 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
개인 기도는 영적인 힘의 척도이자 영적인 복지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인내심을

갖고 찾아보세요.

42 질의응답

형이 외설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형은 감독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도 형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형에 대한 저의 신뢰감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44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 역사 바라보기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교회 역사를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48 영의 강한 속삭임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영의 속삭임을 듣기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1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아마사나 이
폭동이 시작되자 형과 나는 서로 다른 길로 가야 했다. 형을 다시 볼 수 있을까?

54 신권 지도자의 권고를 따르는 다섯 가지 방법

신권 지도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6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감사

데이비드 엘 벡

58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

김벌리 사빈 플럼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할머니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63

60 나쁜 영화

줄리아 우드버리
반 친구들이 투표로 선택한 일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62 특별한 증인: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회원들을 더 사랑하시나요?

쿠엔틴 엘 쿡 장로

63 병상에서 드린 기도

호세 엘 알론소 장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항상 바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응답은 오게 마련이다.

6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나는 침례와 확인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66 침례와 축복

케이시 에어
트레버는 물에 잠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트레버는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68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사는 엔크흐진 에이예요

엔크흐진과 엔크흐진의 가족, 그리고 엔크흐진이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세요.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81 선지자 초상화: 로렌조 스노우

51



2013년 6월호, 제50권, 제6호
리아호나 10786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재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사도장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엠 레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라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엠 보웬,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콜먼 이세, 앤서니 디 퍼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앨리사 젠데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넷,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먼, 민지 라예 프리드만, 게리 에이치 가프,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히카리 로프타스, 리차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르렌 뱅거터 월드, 줄리아 우드버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팀: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드, 토마스 차일드, 캐리 린 시 해리, 콜린 윙클러, 에릭 피 존슨, 스캇 엠 무이, 브래드 테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숄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넬슨, 티 필처, 가일 터터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예반 말슨

통 관: 제559호, 제50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4)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iaihona.lds.org로 보내 주시기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aii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iai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서모니아어, 체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ne 2013 Vol. 37 No. 6.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족 역사, 7, 37
가족, 8, 22, 42, 51, 58, 68
간증, 48, 80
감사, 56, 58
경전, 4
교회 부름, 13, 14
교회 역사, 44
구원의 계획, 51
기도, 34, 36, 38, 63
모범, 14
무도회, 35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PHOTO ILLUSTRATION BY CODY BELL © IR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 58쪽: 김벌리가 할머니께 드린 선물에 대해 읽어 본다. 이 이야기에 대해 토론할 때 다음 질문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김벌리의 편지는 왜 그렇게 할머니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에 대해 어떻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8쪽에 있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읽을 수 있다. 누가복음 17장 11~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환자 열 명을 고치신 이야기를 들려 주고, 이 이야기에서 감사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토론한다. 가정의 밤 활동으로 가족들은 각자 그 주에 누군가에게 줄 감사 쪽지를 쓸 수 있다.

“침례와 축복”, 66쪽: “니파이의 용기”(어린이

노래책, 64장)를 부르면서 가정의 밤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후 트레버가 물에 대한 공포를 이겨 낸 이야기를 읽고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본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는가? 무서움을 극복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 가족들에게 걱정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더 용감해질 수 있도록 가족으로서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토론한다. 가정의 밤 활동으로 방에 장애물 코스를 만들 수 있다. 가족 중 한 명의 눈을 가린다. 눈을 가린 사람이 지시에 귀 기울여 장애물 사이를 안전하게 지나감으로써 신뢰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영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는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역사, 7, 37	미디어, 60	예수 그리스도, 8, 14, 70
가족, 8, 22, 42, 51, 58, 68	봉사, 13, 14, 36	외설물, 42
간증, 48, 80	사랑, 62	용서, 42
감사, 56, 58	성신, 64	장애, 13
경전, 4	성전 사업, 7, 14	조셉 스미스, 48
교회 부름, 13, 14	순종, 54	지지함, 54
교회 역사, 44	신권, 54	충성심, 14
구원의 계획, 51	신앙, 10, 14, 66, 80	침례, 64, 66
기도, 34, 36, 38, 63	역경, 8, 51	태도, 14
모범, 14	연차 대회, 4	표준, 35, 60
무도회, 35	예배, 10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제자리에서 멤돌지 않으려면

길을 잃으면 같은 곳만 멤돌게 된다는 서양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독일 심리학자인 쟈 엘 쇼맨은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을 넓은 삼림 지역과 사하라 사막으로 데려가 위성 항법 장치로 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나침반이나 다른 어떤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규칙을 받았는데, 바로 지시한 방향대로 똑바로 걸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쇼맨 박사는 이후에 실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참가자 [일부는 구름 뒤로 햇빛이 가려서 [기준점이 보이지 않는] 흐린 날에 걸었습니다. …… 모두들 제자리에서 멤돌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왔던 길을 계속해서 똑같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햇살이 비쳐서 저 멀리 기준점이 보이는 날에 걸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정확히 똑바로 걸어갔습니다.”¹

다른 학자들도 다른 방법으로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² 모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가시적인 기준점이 없을 때 인간은 제자리에서 멤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지가 되는 경전

영적인 표지가 없다면 인간은 헤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리를 멤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사람들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시대에서 이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분명 이런 연유로 주님은 리하이에게 아들들을 시켜 늦쇠판을 갖고 오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하이의 자손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데 지침이 될 기준점, 즉 확실한 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표지로서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합당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야 할 길을 보여 줍니다.

연차 대회라는 표지

연차 대회에서 전하는 지침은 또 다른 표지로서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혹 저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최근의 연차 대회 연사들의 말씀에 귀 기울였는가? 그들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 내 삶에 적용해 보았는가? 아니면 그 좋은 말씀들을 단순히 읽기만 하고 내 삶에 그 영감에 찬 메시지를 적용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아마 여러분은 듣거나 읽으면서 한두 줄 정도의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아마 더 나은 무언가를 하거나 다르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연사들이 가족을 강화하고 더



따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표지판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합시다.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의 속삭임을 듣고 따릅시다. 일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고귀한 표지판을 인식하면 우리는 그에 따라 진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표지판으로 향할 때 정기적으로 진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제자리에서 맴돌지 않고 자신감과 확신을 품고서 위대한 하늘의 축복, 즉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는 좁고 험악한 길을 걷는 이들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얻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

주

1. Jan L. Souman and others, "Walking Straight into Circles," *Current Biology*, vol. 19(Sept. 29, 2009), 1538-42 참조.
2. 예를 들어 Robert Krulwich, "A Mystery: Why Can't We Walk Straight?" 참조. npr.org/blogs/krulwich/2011/06/01/131050832/a-mystery-why-can-t-we-walk-straight 참조.

나는 결혼 생활을 하도록 권하셨습니다. 이번 호 리아호나 역시 우리 삶을 축복할 많은 실질적인 권고와 함께 이러한 영원한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이 훌륭한 권고에 유의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실질적이고 값진 표지를 알아보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헤매지 않을 방책

영적인 표지는 우리가 좁고 험악한 길을 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표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가리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그 표지를 인식하고 그쪽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이 표지의 방향을 무시한다면 그 표지는 소용없게 될 것이며, 아무 쓸모 없이 평평한 지평선의 흐름만 깨뜨리는 물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본능에 의지해서 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감각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곧은 길을 따라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는 진정한 표지판, 즉 영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이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할 때 영적인 표지대로 따라간 사람들, 혹은 제자리에서 맴돈 사람들의 예를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 구절부터 시작하여 경전을 공부할 수 있다. 민수기 14:26~33; 니파이전서 16:28~29; 엘마서 37:38~47. 영감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 모범에서 얻은 통찰력을 나눌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본다.

여러분을 위한 표지판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연차 대회와 경전이 영적인 방향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표지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영향을 미친 다른 영적인 표지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일지에 적어 보십시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문은 잘 접어서 챙겨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들에 넣어 두거나 출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읽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사의 축복은 가장 어두운 밤에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의 위험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

“축복사의 축복: 빛의 리아호나”,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84쪽.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는 속삭임도 그중한 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92쪽.

어린이

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우리가 영적인 표지판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구주께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기도, 경전, 연차 대회, 리아호나가 이런 표지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따라 미로에서 빠져 나오세요.

가족과 함께 지난 연차 대회 말씀을 읽어 보세요. 연사들은 우리가 옳은 길을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가족과 함께 배운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목표를 세워 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³ 우리는 조상을 위해 대리로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들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을 행할 수 있다.

열네 살 된 아들을 여윈 일리노이 나무의 샬리 랜달 자매는 영원한 가족에 대한 약속에서 큰 위안을 찾았다. 남편이 아들을 위해 침례 받은 후 그녀는 친척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조상을] 위해 침례를 받는 [것과] …… 그렇게 구원을 받[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후 샬리는 친척들에게 조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해요.”⁴

가족 역사에서 얻는 기쁨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엘리야의 영이란 “가족의 거룩한 본질을 증거해 주는 성신의 임재하심”이라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 회원인 우리는 조상을 찾고 그들을 위해 복음의 구원 의식을 베풀 성약의 책임이 있다. 우리가 아니면 조상들은 “온전함”(히브리서 11:40)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교리와 성약 128:15)

가족 역사 사업은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의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배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 역사는 교회 사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모두를 위한 구원 사업과 승영을 가능하게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자신의 혈통을 탐구할 때 우리는 …… 이름 ……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 우리의 그러한 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조상에게 돌리게 하며, 그들을 찾아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합니다.”²



성구에서

말라기 4:5~6; 고린도전서 15:29; 교리와 성약 124:28~36; 128:15

주

1. Russell M. Nelson, “A New Harvest Time,” *Liahona*, July 1998, 34; *Ensign*, May 1998, 34.
2. 보이드 케이 패커, “여러분의 가족 역사: 일을 시작함”,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17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75쪽.
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년), 20~21쪽 참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내가 돌보는 자매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2. 나는 내 개인 역사를 기록하는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베키 스콰이어

정 기 검진을 받으러 온 나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초음파로 조그마한 내 아기의 심장이 뛰는 것을 이미 보았지만, 몇 주가 지난 지금 내 뱃속의 아이는 더 커져 있을 것이다. 세 번이나 임신이라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나는 언제나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0분이 지난 후, 나는 차 안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 심장 박동이 영원히 멎어 버린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공허하고 외로웠다. 남편은 다시 출근해야 했고 우리 세 아이는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다. 나는 마지못해 아이들을 먹이고 집안을 깨끗이 치워보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일을 보고 난 후 집으로 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부재중 통화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누구도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시간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새로 온 이메일도 없었다. ‘친구와 이웃들이 과연 내 걱정은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적어도 내 친구들이 아니던가? 부지불식간에 사탄이 내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남편은 니파이전서 21장 15~16절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나는 이미 속죄에 대해 배웠고 공부했기 때문에 속죄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속죄를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슬픔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보이신 최고의

모범인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만물 아래로’(교리와 성약 88:6) 내려가셨으며 ‘만인의 고통’(니파이후서 9:21)을 겪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속죄에는 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방대한 목적이 있음을 [안다.] 지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커다란 이 업적을 통해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성취하실 권능을 얻으[셨다.] ‘만일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키[면], …… 그는 ……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내시리라.’(모사이야서 7:33)”¹

이 끔찍한 시기에 완전히 나를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아시지 못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고 근면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 어려운 문제들이 감소되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며, 빛이 우리 위에 비쳐 절망의 암흑이 흠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성신의 위안을 느끼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십이사도 정원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77쪽.



이해하고 아시는 주님만큼 좋은 친구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슬픔을 극복할 때 구주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주님께 돌이켰을 때 나는 곧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마음이 차분해졌고 평화를 느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분은 내가 유산한 후 힘들었던 시기에 정말 염원했던 친구, 즉 내게 가장 필요했던 친구였다.

나는 죄를 회개해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깨에 기대어 울고 싶을 때도, 언제나 구주께 돌이킬 수 있음을 안다. 그분은 언제나 곁에 계시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남편은 니파이전서 21장 15~16절을 나누었다. 나는 슬픔을 극복할 때 구주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 있는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 삶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다.

“저는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 안에서의 평화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의 평화와 우리의 삶에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인간의 방식에 따른 평화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른 평화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

첫째, 자기 성찰을 합시다. ……
개개인의 영혼에 평화가 싹터 자라게

하는 데 바탕이 되는 개인의 순결, 고결한 성품 등의 원리를 키우지 않으면 평화란 올 수 없습니다. ……

둘째, 밖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 교회 회원이 되면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권유받습니다.

셋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을 향할 때, 영적인 힘에 이르는 길, 곧 평화를 얻는 수단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데서 우리는 위안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평화를 찾음”,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4~6쪽.

이 세 가지 제안 중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가?

주

1. 도널드 엘 홀스트룀, “주님께 향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80쪽.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
제12대 교회 회장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항상 신앙을 행사하기보다는 눈
앞에 있는 것에 의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물질적인 것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경전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여 신앙을 잃게 될 때,
신앙 대신 “육체의 힘”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다니엘 5:23)에 희망을
두게 됩니다. 곧 우상을 말합니다. 구약의
주류를 이루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을 두고 가장 신뢰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 경배하는 신입니다. 그 신이
이스라엘의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구를 읽고 니파이가
제언한 것과 같이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비유하여”(니파이전서 19:24)
생각해 본다면 고대의 우상 숭배와
오늘날 우리의 행위가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바람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적인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돈, 주식,
채권, 재산, 가구, 자동차 등 세속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이러한 자기의
우상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우리의 임무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자원을
가정과 정원회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 곧 선교
사업을 확장하고, 자녀를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키우며, 계보 사업과
성전 사업을 수행하고, 모든 면에서
이웃을 도와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축복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모로나이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꾸미면서,

주린 자와, 궁핍한 자와, 벗은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너희 곁을
지나가되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냐?”(몰몬서 8:39)

현대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걸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상의 것이니, 점점 낡아져
바벨론 곧 무너질 대 바벨론에서
멸망하리라.”(교리와 성약 1:16, 강조체
추가)

현명하지 못한 교환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그가
투자한 사업체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업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 하여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얻기 위해 주님에 대한
봉사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세로 백만
불어치의 금은 지각층에 매장된 금 중
약 270억분의 일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능을 지니신 주님은 “무수한 세상”(모세서 1:33)을 창조하셨으며, 만일 이 사람이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면(교리와 성약 84:33~44 참조)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교리와 성약 84:38)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과 옥옥에 눈이 어두워 이 위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토록 보잘것없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것에 비할 수 없이 값집니다.

선교사로 부름 받은 한 청년은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잘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성능 좋은 그의 새 차를 관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 그동안

청년의 아버지는 “그 애는 손재주가 있죠. 그 애에게는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이 청년은 자기 차의 힘은 바다나 태양의 힘에 비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율법이나 신권으로 다스려지는 많은 태양이 있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할 때 신권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강철과 고무와 빛나는 크롬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한 노부부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은퇴했습니다. 이들은 소형 트럭과 야영 천막 장비를 구입하고는 …… 전 세계를 두루

다녔습니다. …… 이들은 너무 바빠서 성전을 방문할 시간이 없었으며, 계보 조사와 선교 사업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대체사 정원회와 연락이 끊기고, 개인 역사를 기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부에서는 이 부부의 경험과 지도력이 필요했으나 …… 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

우리가 세상적인 왕국을 세우는 데 온 일생과 자원을 바치면, 그것만을 얻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우리는 스스로 현대인으로 자처하며, 과거 어떠한 사람도 누려 보지 못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도 주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된 시각으로 그 영원성을 보게 될 때, "세상의 것"을 버리는 데 따르는 대가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임무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는 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출애굽기 14:14; 교리와 성약 98:37 참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참조 성구는 이 외에도 많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없으며 그분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삼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신앙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의 적에게까지 전해서 그들이 더는 우리의 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더 큰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우리는 현대인의 우상 숭배와 "육신의 팔"에 의존하는 타성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현대에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 두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64: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과 가족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준비해야 하는 길은 더 강한 신앙을 지니고, 회개하며, 지상의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 보일지 모르나

참된 사업을 이해하고 참된 시각으로 그 영원성을 보게 될 때, "세상의 것"을 버리는 데 따르는 대가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여기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불러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을 위한 영생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

소재목 추가. 구두전, 철자가 현대어법에 맞게 표준화됨.
"우리가 섬기는 우상",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1~4쪽에서 발췌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

베키 영 포셋
교회 장애 서비스

텍 사스 허스트 스테이크의 장애 전문가로 부름 받았을 때, 린 파슨스는 스테이크 회원들의 삶, 특히 장애를 겪는 회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자신의 부름을 통해 축복하고 싶었다.

린은 제일 먼저 한 일은 LDS.org(lds.org/callings/disability-specialist)에서 자신의 부름에 관한 정보를 살펴본 것이었다. 그런 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를 통해 장애를 겪는 사람들과 관련된 교회의 공식 정책을 이해했다.* 또한 장애 관련 자료 웹사이트(lds.org/disability)에서도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웹사이트는 린이 다양한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린은 이 웹사이트 자료를 스테이크 회원들에게도 소개했다.

*지침서 제2권*에는 “감독단 또는 스테이크 회장단은 개인과 가족을 돕도록 와드 또는 스테이크 장애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다.”라고 나온다. LDS.org에는 이 부름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실려 있으며 이러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장애 전문가의

역할은 장애가 있는 교회 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²

린은 이것을 이해했고,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도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한다.

린은 또한 지역 사회, 국가 자료, 인터넷,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도운 경험이 있는 와드와 스테이크 회원들을 통해 정보를 찾았다. 린은 그러한 자료를 스테이크 내에서 지도자들과 가족들이 직면한 일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활용한다. 그녀는 정보나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기도를 통해 진심으로 답을 구하려 하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영감으로 알게 된다.”고 말한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린은 또한 자신의 지역에서 지도자들이 장애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린은 자신이 부름

받았다는 것과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리는 서한을 감독들에게 보내도록 스테이크 지도자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단과 모임을 하고, 다른 지도자들과도 만날 계획을 세웠다. 린은 “정보를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죠.”

린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자신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림으로써 곧 지도자들을 도울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다. 장애 전문가로 부름 받은 지 몇 개월 내에, 그녀는 와드 평의회에 참석해서 특정 장애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여러 방법으로 봉사했다. 예를 들면, 교사가 자폐증을 앓는 어린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거나 초등학교 보조 교사 부름을 주어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공과에 참여시키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린은 조금씩 전진해 나가며, 지도자들이 그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수행하도록 도울 계획을 세운다. 이 일을 하면서 린은 스테이크 회원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에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돕고 있다. ■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1.1.26.
2. “장애 전문가”, www.lds.org/callings/disability-specialist



ILLUSTRATION BY BETH M. WHITTAKER





제임스 이
파우스트
(1920~2007)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길을 잃고 헤매는 소중한 양들

의롭고 부지런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지녔으나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는 선한 목자가 그 자녀들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1995년 3월 12일에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받아, 2007년 8월 10일에 타계하기 전까지 부름을 수행했다. 200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이 말씀은 가족 강화에 관한 여러 기사 중 하나로서 이번 호에 실리게 되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친구 여러분, 오늘 아침 저의 메시지는 사랑과 헌신이 깃든 의로움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자녀들이 거역하거나 악과 파멸의 길을 따라간 연고로 상심한 부모들에게 주는 희망과 위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고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저는 “라마에서 ……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은 고마운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 울음 소리[를] …… 멈추어라 네 일에 샅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¹

이 교회에서 부모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 교리와 성약 68편에 있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가르침에 담겨 있다는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여덟 살일 때,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²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치라”³는 지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로서 저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겪을 것이며 어쩌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들을 마침내 돌아온 탕자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이끌기만 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실하게 이 권고에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입니까? 그들은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모범과 훈계로써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사랑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노력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 점은 일부 자녀들이 불순종하거나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맞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영과 개성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옵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마도 어떠한 부모나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다루기 힘들 것이며] …… 마찬가지로 어떠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⁵ 성공적인 부모는 그들의 가족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희생을 하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들입니다.

자녀에 대해 부모가 지닌 사랑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관계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능가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연속적이고 비통과 실망을 넘어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순종하고 책임감 있는 자녀는 끊임없는 자부심과 만족을 부모에게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충실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가 가르쳐 온 자녀들이 거역을 하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거역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슬픔은 거의 위로가 불가능합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친형제 가운데 한 명을 죽이고 또한 아버지에게 대해 반역을 이끌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관해 듣자마자 다윗 왕은 울며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⁶

부모의 이런 사랑은 또한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역한 아들이 방탕한 생활로 유산을 허비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화를 내는, 순종한 다른 아들에게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⁷라고 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올슨 에프 휘트니[1855~1931] 장로의 위로에 찬 다음 말씀을 믿고 또 받아들이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충실한 부모들의 영원한 인봉과 진리의 대업에서 행하는 용감한 봉사에 대해 그들에게 주신 신성한 약속으로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양들의 일부가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으나 목자의 눈은 그들 위에 머물며, 그들은 조만간 자신에게 뻗쳐 우리로 다시 모으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든지 다음 세상에서든지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에 보응하는 빛을 갈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겪을 것이며 어찌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들을 마침내 돌아온 탕자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이끌기만 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심성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계속 희망을 가지고 신뢰하십시오.”⁸

부모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사랑에 찬 확고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도 자녀 훈육의 일부입니다.



탕자는 가족으로서 환영을 받았지만, 그의 유산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공의를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이며, 충실한 부모의 인봉 권능은 오직 벗어나 자녀들이 드리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조건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원리로서 종종 간과되는 것 한 가지는 자녀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자신의 죄로 고통을 겪으며” 또 “공의에 그들의 부채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⁹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벗어나 자녀들이 인생에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인봉의 끈이 그들이 회개를 이를 만큼 강하게 남는 일이 여전히 가능하겠습니까? 교리와 성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집의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속함을 받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치르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후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으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됨이니라.”¹⁰

우리는 탕자가 자신의 유산을 허비하여 탕진했을 때,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으로서 환영을 받았지만, 그의 유산은 다 없어졌습니다.¹¹ 아버지가 공의를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이며, 충실한 부모의 인봉 권능은 오직 벗어나 자녀들이 드리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조건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벗어나 자녀들이 회개한다면 구원과 그에 부수되는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승영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얻어야 합니다. 누가 승영에 이를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아버지로우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거역과 악한 행동이 너무도 커서 “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지은”¹²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심판 또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러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니라.”¹³

의로운 부모의 인봉의 끈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인내력을 갖는지를 우리는 아마도 이생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작용하는, 더 유용한 근원이 아마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¹⁴ 사랑하는 조상들의 영향력이 휘장 저편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가족의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님은 “회개는 영혼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일 뿐이며, 부모의 끊이지 않는 보살핌은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용서가 가장 분명한 형태로 지상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 그 사명을 통해 세우고자 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¹⁵

우리는 부모로부터 부모 역할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제 부친에 대한 저의 사랑은 그분이 친절하고, 인내하며, 이해하실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가족의 차를 망가뜨렸을 때, 그분은 온화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그대로 밝히지 않거나 계속 규칙을 어길 때 특히 어머니께 무례하게 굴 때는 강한 훈계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반세기가 지났으나 저는 아직도 그분에게 가서 현명하고 사랑에 찬 권고를 구할 수 있었던 때가 몹시도 그립습니다. 종종 그분의 권고를 의심했던 때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

다. 부모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사랑에 찬 확고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가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도 자녀 훈육의 일부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 정직이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지식은 무익합니다. 수고고 있는 지식은 지혜입니다.”¹⁶

도처에서 사탄의 뜻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 봉사와 활동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나마 잘못 행동하고 또 길에서 벗어난다면, 일부 자녀들이 그 본을 받아서 그릇된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 일에는 언급해야 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설사 부모가 해야 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했더라도 자녀에게 도움을 주려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에게 비판적인 자녀들도 다음과 같이 말한 모로나이의 현명한 권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나를 정죄하지 말며, 나의 부친이나 그의 전에 기록한 이들을 그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정죄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너희에게 나타내사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배우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¹⁷

1823년, 모로나이가 젊은 선지자 조셉

훌륭한 부모들은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모범과 훈계로써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사랑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노력해 온 사람들입니다.

1823년, 모로나이가 젊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을 때, 엘리야의 사명에 관한 다음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저는 모든 자녀가 결국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스미스를 방문했을 때, 엘리야의 사명에 관한 다음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¹⁸ 저는 모든 자녀가 결국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알고 있었던 어느 훌륭한 부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기억하여 가족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년에 그는 부모와 화해를 했으며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잘 보살피고 돌보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 휘장 저편에 계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꿈속에서 우리를 찾을 때 그것은 정말로 감미로운 경험입니다.

일부 자녀들이 기억하고 부모의 가르침과 사랑을 저버리고 멀어졌다고 해서 성실하고 충실한 부모를 비판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친절한 일입니다. 위안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자녀와 손자녀를 둔 부부들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녀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합당하고 의로운 부모들에게 이해심을 보여야 합니다. 저의 한 친구는 “만약에 자녀들과 어떤 문제도 없었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의 지혜로우신 장모님은 다른 자녀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 “난 내 자녀들이 그런 일을 안 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 아이들이 밖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부모가 불순종하고 빛나간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동정심을 갖고 “먼저 돌로 치는 일”¹⁹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익명의 한 교회 회원은 빌이라는 이름의 남동생 때문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느낀 마음의 고통에 관해 적어 보냈습니다. 그는 마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고 훈계하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부정직하고 반항적이었습니다. 탕자와는 달리 이 방황하는 아들은 자발적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그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의 부모는 빌의 치료 프로그램을 뒷받침했으며 결국 그는 마약에서 벗어났습니다. 후에 빌의 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빌이 그 자신과 가족에게 저지른 일들을 나무라시고 혐오하셨지만, 빌에 대한 사랑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빌이 힘든 시절을 참아 내고 더 튼튼한 토대 위에 서는 데 필요한 어떤 일이든 뒷받침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결심이 단단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떨어져나간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더욱 섬세하게, 더욱 광범위하게 실천하셨습니다.”²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방법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존경한다면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의롭고, 부지런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지녔으나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는 선한 목자가 그 자녀들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슬픔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일에 샅을 받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위안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²¹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고 간구드립니다.

아멘. ■

주

1. 예레미야 31:15~16.
2. 교리와 성약 68:25.
3. 교리와 성약 68:28.
4. 교리와 성약 68:28.
5. 하워드 더블유 헌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96쪽.
6. 사무엘하 18:33.
7. 누가복음 15:32.
8. Orson F. Whitney, Conference Report, Apr. 1929, 110.
9. 앨마서 34:32.
10. 교리와 성약 138:58~59.
11. 누가복음 15:11~32 참조.
12. Alonzo A. Hinckley, in Conference Report, Oct. 1919, 161.
13. 교리와 성약 64:10.
14. 존 케이 카막 장로, “우리 자녀들이 실족할 때”, 리아호나, 1999년 3월호, 29~30쪽 참조.
15.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32.
16.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704.
17. 몰몬서 9:31.
18. 조셉 스미스—역사 1:39.
19. Harold B. Lee, *Decisions for Successful Living*(1973), 58.
20. “With Love—from the Prodigal’s Sister,” *Ensign*, June 1991, 19.
21. 예레미야 31:16.

**위안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자녀와 손자, 손녀를 둔
부부들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녀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고 있는 합당하고
의로운 부모들에게 이해심을
보여야 합니다.**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개인적으로 이 영감 어린 메시지를
공부하고 토론할 때 축복이 뒤따를 것이다.

리처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이 약속들이 기억나는가? 아마 평의회 모임, 다섯째 주의 일요일 모임, 상호부조회 혹은 신권 정원회 공과 시간에 본 영상 자료에서 들어봤을 것이다. 혹은 가정의 밤 시간에 토론했을 수도 있다. 약속은 다음과 같다.

- 남편과 아내가 단합할 것이다.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더 훌륭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 청소년들은 성약을 맺고 지키며 전임 선교사로서, 그리고 평생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 독신 회원들은 도움을 받고 가정에서 신권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 정원회와 평의회가 협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볼 것이다.
- 교회가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3월에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이란 제목의 DVD를 발표했을 때 주어진

약속이다. 당시 워드 평의회, 스테이크 평의회는 그 메시지를 살펴본 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상의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또한 가족들도 <http://wwlt.lds.org>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더 짧은 발췌 영상들도 [웹사이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시청하도록 권유받았다. 지도자와 교사는 모임과 공과 시간에 비디오를 보여 주고 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느낌, 경험, 간증을 나누도록 권유받았다. 부모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똑같이 행하도록 권유받았다.

“DVD 활용” 편에 “그들이 맡은 역할과 책임에서 신권 권능으로 강화되는 방법을 성신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활발한 토론

비록 석 달 전에 발표된 내용이기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와 토론, 또한 그에 수반되는 축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은 교회 내 훈련법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다. 전적으로 워드와 스테이크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방송이었던 예전 훈련과는 달리, 이번 훈련은

지속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wwlt.lds.org에 비디오 자료를 게시한 것이다. 관련 사이트인 leadershiplibrary.lds.org에는 그 비디오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으며, 가족, 개인, 정원회, 공과반, 평의회가 이해도를 높이고 배운 것을 적용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자료들도 게시되어 있다.

각 비디오 자료에는 신권의 다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지도자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영적인 지침을 주었다.

- 신권 권능을 통해 가족들은 어떻게 힘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 모든 가족이 신권 축복을 누리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가정과 가족을 강화할 수 있는가.
-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가.
- 어떻게 자녀들을 빛과 진리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가.

비디오와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비디오 영상 자료와 지원하는 자료는 <http://wwlt.lds.org>에 나와 있다. 집회소의 인터넷에서 자료를 볼 때, 집회소 인터넷 연결에 의지하는 대신 다운로드 해서 컴퓨터로 재생하는 것을 지도자들에게 권장한다.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에 있어 다루는 많은 복음 원리는 또한 지침서 제2권에서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침서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과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살펴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성신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특히 가정에서 어떻게 성역을 베풀기를 바라시는지를 배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이 훈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즉, 비디오에서 전하는 내용보다는 배운 원리를 깊이 생각하고 토론할 때 성신이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디서 활용해야 하는가

모든 지도자, 회원, 가족들은 DVD나 온라인으로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의 메시지를 듣고 토론해야 한다. 가족들이 가정의 밤이나 기타 가족 모임에서 그 메시지를

사용한다면 축복받게 될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결국 동등하게 자녀를 이끌어야 한다. “이 일은 그분의 사업입니다”라는 제목의 비디오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부모들은 아들이나 딸을 도우려 할 때 이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신권 고문이나 청년 고문의 가르침이 매우 효과적이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모범이나 아버지의 모범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교회에서는 이 메시지가 스테이크 회장단과 감독단 모임, 스테이크 평의회와 와드 평의회, 신권 집행 위원회 모임, 스테이크 보조 조직 훈련 모임,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 및 청년반 회장단을 비롯한 회장단 모임, 다섯 번째 주의 일요일 신권 및 상호부조회 합반 모임, 일요 정원회 모임 및 보조 조직 반, 스테이크 및 지방부 대회(일요 총회는 제외), 와드나 지부 대회(성찬식 모임은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훈련에서 얻은 선지자의 원리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에 포함된 비디오 자료에는 기억에 남을 만한 가르침이 가득하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한다.

신권 열쇠에 대한 토론을 이끈 **엘 톰 페리 장로**는 “우리가 속한 교회는 구주의 교회입니다. 이곳 지상의 선지자를 이끌고 인도하고 지시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머리시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간증한다.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가정에서 의로운 신권의 영향력을 느끼고 그들 삶에서 신권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보다 미래의 선교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가르친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신권 권능은 개인의 의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신권 권능과 그 축복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권고한다. 옥스 장로는 가족이 “해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승영에 대한 상징이자 그 전신”이라고 말한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신권 권능은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인봉 의식을 통해 가족을 함께 묶어 줍니다.”라고 간증한다. 또한 이렇게 권고했다. “와드와 스테이크를 인도하는 형제들은 교회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힘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등 여러 모임에서 나눌 수 있다.

토론에서 청소년과 청년 독신 성인을 강화할 방법을 다룰 수도 있다. 지도자들은 이 토론에 기초해서 임무 지명을 하고, 평의회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그 임무 지명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목적은 개인과 가족들이 신앙을 강화하고 간증을 키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깊이 개종하도록 돕는 데 있다.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의 안전과 성공에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의도와 마음을 하나님의 바람과 권능에 맞추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메시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기 위한 지침과 권고”이다.

“신권으로 보살핌” 편은 개인과 가족을 방문하는 신권 지도자들의 훌륭한 모범과 그러한 방문이 저활동 회원을 구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일은 그분의 사업입니다.”라는 제목의 비디오 자료에서 게리 이 스티븐슨 감리 감독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처진 팔을 들어 올려주며, 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는 우리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과 그 보살핌에 따라 누군가의 가정에서 일대일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가 토론하면서 배운 것을 실제로 행할 때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힘과 평화

이 훈련이 교회 전체에서 계속되고, 회원들이 배운 복음 원리를 적용한다면 축복이 뒤따를 것이다. 벨라드 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은 이 훈련 자료의 가르침과 예시들을 따른다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청소년, 독신, 정원회, 평의회는 신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영감을 찾는다. 계속 그렇게 할 때,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에서 약속된 것들이 실현될 것이다. 아이어링 회장이 마지막 비디오 영상 자료에서 한 “혹 암울한 시기에 처하더라도 …… 우리의 가족은 강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아홉



사진: 김희·크레이그 데이먼드·포디 펠 © 2013

가지 원리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가족을 위한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교회 잡지



미 국 워싱턴에 사는 에이미 애덤스는 어린 세 자녀에게 어떤 활동이 가장 좋을지 생각하다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아이들에게 춤 교습이나 운동을 배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에이미의 어머니가 물었다. “집에서 애들을 돌보면 그 아이들이 영을 더 잘 느끼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겠니?” 그때 어머니는 에이미에게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인생에서 기본적인 관계에 집중할 때 발휘되는 힘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일러 주셨다. (“가장 중요한 것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9~22쪽 참조)

에이미와 남편 브레트는 이 권고에 대해 기도하고 깊이 생각했으며, 가족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1년간 그들은 춤 교습과 운동 연습 등을 멀리했다. 대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초등학교 노래를 배우는가 하면, 박물관에 가거나 야외에서 놀았다. 에이미는 “자녀들이 영을 느낄 수 있었어요. ……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면서요.”라고 말한다. 에이미는 아이들이 뛰어난 운동 선수나 무용수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구주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라고 말한다.

에이미와 브레트는 현대 선지자의 권고를 어떻게 따라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을 때 가족에게 필요한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 에이미는 이 영감으로 “어머니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왔다고 말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현대 선지자들은 강하고 복음 중심적인 가족이 되는 아홉 가지 기본 원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회개, 기도, 용서, 사랑, 존경, 동정심, 건전한 오락 활동, 일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다음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여 주는 모범, 그리고 시각 자료들은 이 아홉 가지 원리와 우리가 이를 적용할 방법을 자세히 알려 준다.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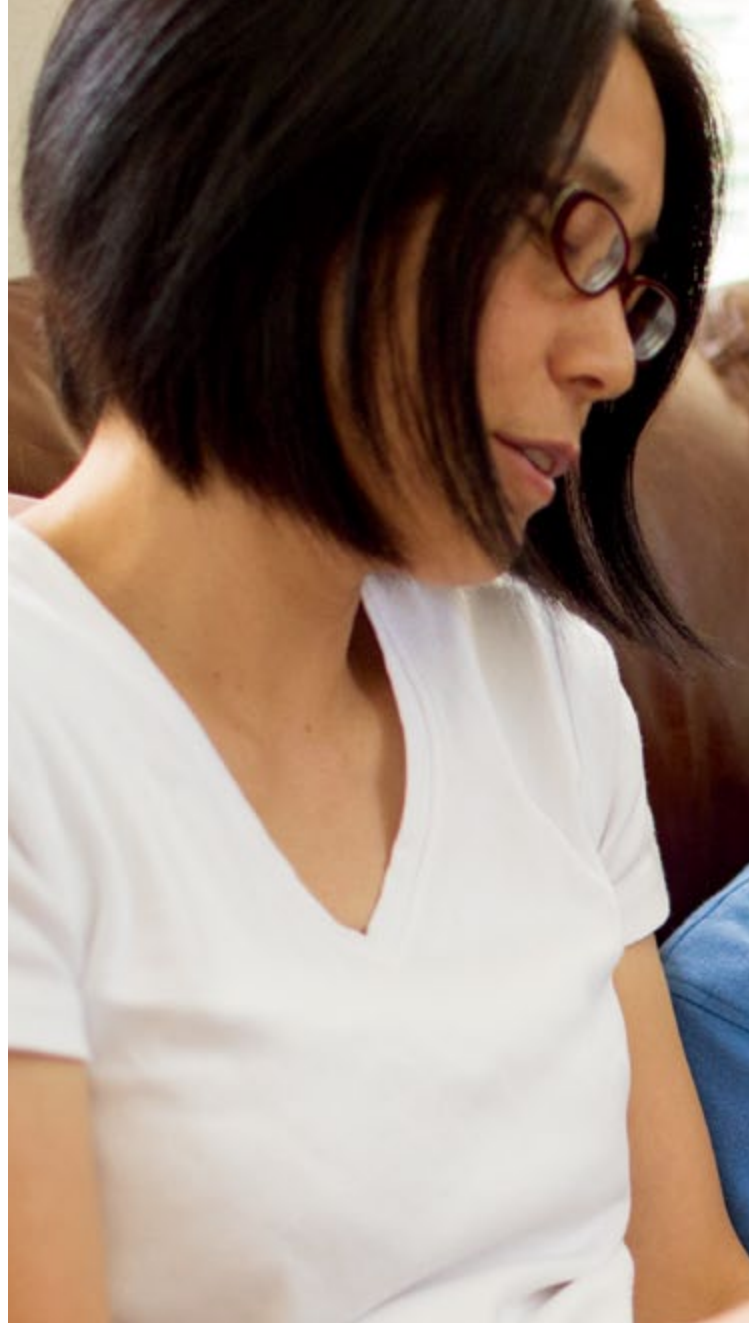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사람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이다.”
경전 안내서, “신앙”

교회 지도자

“**부** 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 교리를 이해하도록(교리와 성약 68:25)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생의 토대도 없습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 훈계, 운동, 예술, 물질적인 재산을 주더라도, 만일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준 것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 칠십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38쪽.



회개



“회개는 악에서 돌이켜 그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소망에 따르고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경전 안내서, “회개하다, 회개”

교회 지도자

“**오** 늘이 내일보다 회개하기에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 우리가 당장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때는 우리가 오늘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미쳤을 수도 있는 훌륭한 영향을 주님일지라도 회복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매서운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결코 다시 오지 않을 영적 영향력과 격려를 위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행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 버린 할아버지일지라도, 오늘 회개를 선택함으로써,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에게 해 줄 수 있었던 것들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미루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0쪽.





왼쪽 사진 출처: 크리에이그 다이먼드, 포디 벨, 크리스티나 시미스 © FR; 주 예수 그리스도, 델 파슨 © 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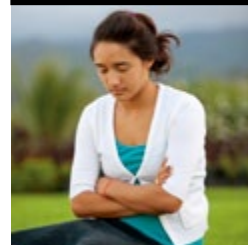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구주는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첫째 날을 마치실 때 사람들을 응시하시며 “그들이 눈물을 머금은 채 마치 그에게 조금 더 그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간구하려는 듯이 그를 주목하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측은함으로 가득하여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리가 아픈 이들을 데리고 나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한 명씩 고쳐 주셨다. 2,500명에 달하는 남녀와 어린이들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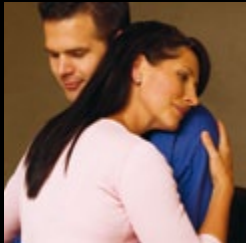
그때 구주는 어린이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신 후 무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분은 어린이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의 기도를 듣고 기쁨에 압도된 사람들은 이렇게 간증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것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이전에 결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며, 귀로도 들은 일이 없느니라.”(제3니파이 17:1~17 참조)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자녀들의 뜻이 서로 일치하게 되는 과정이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기꺼이 허락하고자 하지만, 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축복들을 받기 위한 것이다.”
경전 안내서, “기도”

용서



“용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 (1)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할 때에는 그가 죄에 대해 요구하는 형벌을 취소하거나 또는 무효로 하는 것이다. …… (2)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할 때 그들은 서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대[한다.]”
경전 안내서, “용서”

대답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보느냐 ……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 후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약속하셨다.(누가복음 7:36~50 참조)

교회 지도자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용서받고 용서합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궁홀히 여기는 자가 궁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7쪽.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구주께 저녁 식사에 함께 해 주시기를 청했다. 식사하는 동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구주께 와서 그분의 발 곁에 서서 울었다. 그녀는 구주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향유를 부었다. 시몬은 그 여자를 보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라고 생각했다.

구주는 그때 시몬을 돌아보시고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다.

“빛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런 뒤 예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다. “둘 중에 누가 [빛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아마도 많이 탕감받은 자일 것이라고

원문: 사진: 로렌스, 스티브 빈더슨, 데이비드 윈티스, 데이비드 라이어, 복사 금지; 현대 사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뮐 파슨 © R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켄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셨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구주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발을 다 씻기신 후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1~5, 34~35 참조).

사랑



“깊은 헌신과 애정. ……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의 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전 안내서, “사랑”

“높이여 공경함.”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2003), “resp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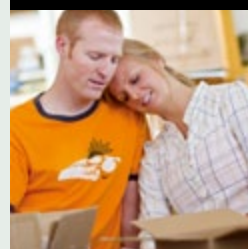
교회 지도자

“**만**은 것을 경험하고 이곳 저곳을 다니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속절없이 지나가버리는지, 때로는 걸치레에 지나지 않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때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가족, 그리고 서로에게 충실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무와 존중, 더 나아가 소속감으로 함께 뭉쳐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축복받은 가족 생활이라는 유대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배웁니다. ……”

형제 여러분, 아내를 고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아내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자매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에게는 친절한 말들이 필요합니다. 다정한 웃음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들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리아호나*, 2011년 8월호, 4쪽.

존경



공휴



“문자 그대로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타인에 대한 동정, 연민, 자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경전 안내서, “공휴”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청년의 시신이 놓인 관에 손을 대시더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다. 곧 그 청년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고 구주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인도해 주셨다.(누가복음 7:11~15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경 전에는 구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휴를 보이신 예가 무수히 많다. 공휴로 충만하신 그분께서는 두 맹인의 시력을 회복해 주셨고(마태복음 20:30~34 참조) 나병환자를 깨끗이 하셨으며(마가복음 1:40~41 참조) 니파이인 무리들 가운데 아픈 이들을 고쳐 주셨다.(제3니파이 17:6~9 참조)

특히 감동적인 한 예가 있는데,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을 때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인 젊은이의 장례식을 보셨다. 나인 성의 많은 사람이 그 과부와 함께했고 또 그녀가 몹시 비탄에 잠겨 있음을 보신 구주는 그 과부를

건강한 여가 활동



건강하고 유익한 활동은 참여한 모든 사람의 힘과 정신을 새롭게 한다.

교회 지도자

“정 직한 수고가 달콤한 휴식을 안겨 주는 것처럼 건전한 여가 생활은 일과 친구이자 변함없는 동반자입니다. 음악이나 문학, 예술, 춤, 연극, 운동 등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즐거움을 선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을 성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흥으로 통하는 많은 것이 저속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며, 폭력적이고, 정신을 마비시키며,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때로는 건전한 여가를 찾는 것이 오히려 힘든 노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여가가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바뀐다면 여가는 험난된 삶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별된 삶을 고찰하며”,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7쪽.





원쪽 사진 상하: 크레이그 데이먼드, 코디 벨, 데이비드 스토킨거 © R. 나는 믿습니다, 리즈 페리-스완틀, 복서 금지

교회 지도자

“어린 아이에게 성실한 노동의 기쁨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사 중에서 큰 은사에 속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부모의 책임을 부모들이 아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하는 일의 중요성과 이 책임에 따르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딸들에게 가사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에 아름다움과 질서를 갖게 하려는 마음을 심어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

[제 부친]은 저에게 성실한 노동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심어 주셨고, 저 자신의 가족을 위해 부양의 책임을 지게 되는 인생의 시기에 대비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현명한 부친에게서 배운 성실한 노동의 원리인, 낭비하지 않고, 훈련하고, 그리고 맡은 일의 끝을 보라는 것은 제가 장차 선택하게 될 일에 대한 성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

엘 톰 페리, 십이사도 정원회, “성실하게 일하는 기쁨”,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79~80, 81쪽.

일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힘을 발휘함.”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2003), “work”

지금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사는 에드먼턴에서 북쪽으로 다섯 시간 정도 떨어진 캐나다 앨버타 피스 리버로 가족과 함께 주말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북쪽 지평선에 어둠이 깔린 지 오래였고, 앞에 보이는 도로 위에는 눈보라가 거칠게 몰아쳤지만, 차 안은 그저 평화롭고 고요했다.

그런데 갑자기 계기판에 불길한 경고등이 켜졌다. 몇 년 전에 그 경고등을 본 적이 있기에,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려웠다. 급히 불필요한 동력을 꺾지만, 엔진은 곧 멈춰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이전 마을을 지나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온 상태였고, 다음 마을까지는 그 이상을 달려가야 했다. 양쪽 차선에 차가 지나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절박하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열한 살 된 아들 카슨이 이렇게 말했다. “우린 지금 기도해야 해요!” 석 달도 채 안

된 일이지만, 남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일로 카슨은 몹시 힘들어했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잃어야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카슨은 얼마나 몸부림치며 많은 기도를 했던가?

아내와 나는 카슨에게 기도는 우리의 소망대ろ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카슨이 우리의 설명을 얼마나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카슨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계속 그분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기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미러에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반짝거리는 전조등 불빛이 보였다. 곧 에드먼턴으로 가던 기다란 화물 트럭이 우리 앞에 멈춰 섰다.

운전자에게 다가가자 그는 강한 프랑스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차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그는 몇 마일 전에도 멈춰

선 차 한 대를 지나쳤는데 악천후 때문에 차를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차에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타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멈춰 섰던 것이다.

그는 단 몇 분 만에 우리 차를 자신의 트럭에 연결해 주었고, 우리는 에드먼턴으로 향했다. 가는 길이 추웠으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감미로운 확신을 느꼈기에 마음은 따스했다. 때때로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강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오기도 한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이다. ■

제프리 알 맥마흔, 캐나다 앨버타



기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미러에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반짝거리는 전조등 불빛이 보였다.

다른 댄스 파티에는 절대 안 갈래요

미 국 일리노이 시카고의 변두리에 사는, 20명이 채 안 되는 후기 성도 청소년들은 재학생이 4,400명에 달하고 두 개의 별개 교정을 갖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우리는 아들이 받는 교육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높은 표준을 따르는 많은 훌륭한 가족들에 만족했다.

2학년이 된 어느 봄날, 아들은 학교 댄스 파티에 초대되었다. 아들의 파트너는 예쁘고 단정한 옷을 입었고 우리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댄스 파티를 즐겼는지 무척이나 듣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은 집에 와서 “다시는 학교 댄스 파티에 안 갈래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닌가! 아들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이 선정적인 춤을 쳤으며 학교 당국은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 학군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하는 나는 며칠 후에 교감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그분은 고결한 분이라 내 염려에 귀를 기울일 것 같았다. 교감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내게 권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뭐라고 쓸지 고민했고 부적절한 댄스 파티와 그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실망감을 적기로 했다. 학업과 관련한 기준은 높으면서 왜 다른 모든 활동의 기준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몇 달이 흘렀고, 나는 내 편지가 소귀에 경 읽기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개학 등록을 하는데 한 교감 선생님이 “학교 댄스 파티에 대한 서한을 보낸 그 어머니이신가요?” 하고 물어왔다.

“네, 그런데요?”

그는 “보내신 서한이 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교장 중 한 분이 몇몇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야 그런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모두 똑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다시는 학교 댄스 파티에 안 갈래요! 너무 역겨워요!”

그러자 학교 당국은 댄스 파티 예절에 관한 규정을 정했으며, 그것을 다음 홈커밍 댄스 파티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장은 학생들에게 규정을 어기면 귀가 조치를 하겠다고 알렸다.

나는 아들이 홈커밍 댄스 파티에서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전처럼 선정적으로 춤을 추려는 아이들은 귀가 조치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여태껏 갔던 댄스

파티 중 최고였다는 말도 했다.

나는 학교 당국에 서한을 보내어 가장 훌륭한 학교 댄스 파티를 열어 준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교감 선생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다. “작년 봄에 그 이야기를 꺼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서한이 없었더라면 이곳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장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새로운 댄스 파티 규정을 도입했고 이제는 수많은 학생이 학교 댄스 파티를 즐기게 되었다.

나는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믿음을 수호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나는 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배웠다. ■
웬디 밴 노이, 미국 일리노이



그 러자 학교 당국은 댄스 파티 예절에 관한 규정을 정했으며, 그것을 다음 홈커밍 댄스 파티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최 근에 나는 교회에 늦게 도착해서 회중이 개회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급히 예배당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예배당에 들어서보니 평소보다 참석자 수가 더 많았다. 그 많은 방문자를 둘러보면서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한 가지는 오늘이 우리 와드 초등학교 발표가 있는 날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았다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로 꽉 찬 예배당의 맨 앞줄에 서둘러 앉았다. 그때 마침 한 젊은 어머니가 6개월 된 딸을 팔에 안은 채 두 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 자매님의 남편은 뒤따라 들어오지 않았다. 예배당을 둘러보니 그는 단상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 초등학교

발표 반주를 맡았던 것이다.

나는 독신이기 때문에 보통은 함께 앉는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내 친구는 다른 곳을 방문 중이었다. 나는 이 젊은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앉으면 좋겠다 싶어 함께 앉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그 자매님은 그러라고 했다. 모임 내내 나는 어린 남자아이를 챙기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발표를 들었다.

성찬식 모임이 끝난 후 그 엄마가 몸을 기대며, 아침에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다. 그 자매님은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자기 옆에 앉아 도움을 주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고 했다. 자기 혼자서는 성찬식 모임 내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자매님이 그날 아침에 한 그 단순한 기도에 내가 응답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안다. 단순한 요청에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지켜본 나는 큰 교훈을 배웠으며 이 자매님도 그 경험을 통해 배웠으리라고 확신한다. 내가 자매님과 함께 앉아도 되는지 물었을 때는 그녀의 기도에 내가 답이 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 나는 그저 내가 그분이라면 나를 위해 누군가 해 주기를 바라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작고 단순할지라도 듣고 응답하신다. ■

에이미 흐라나크 존슨, 미국 아이다호

모 임 내내 나는 어린 남자아이를 챙기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발표를 들었다.



네가 내 슬픔을 가시게 해 주었구나

한동안 나는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조사를 계속하면서 딱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찾기 어려웠는데, 바로 외할아버지였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밑에서 크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자매, 외할아버지의 친척 모두와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에게는 외할아버지의 생년월일이나 출생지를 입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분이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필수적인 정보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일지를 훑어보다가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뒷면에 보니 그분의 서명과 날짜가 있어서 그 당시 연세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제 그분의 생년월일을 대략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흥분되어 그분의 이름과 날짜를 FamilySearch에서 찾았다. 정말 놀랍게도 그분의 의식은 이미 집행되어 있었다! 누가 외할아버지의 성전 사업을 한 것일까?

나는 곧 오래 전에 연락이 끊긴 외삼촌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분의 연락 정보를 찾았고 마침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외삼촌을 뵈는 것은 30년 전으로, 내가 한 살 때였기 때문에 막상 그분께 전화하러니 긴장이 되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외삼촌이 전화를 받으시자 나는 그분의 아버지인 내 외할아버지의 정보를 어떻게 찾았는지를 말씀드리고 내가 외삼촌의

조카임을 밝혔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분의 대답을 기억할 것이다. “네 엄마와 연락이 끊긴 것을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를 게다. 이제 네가 내 슬픔을 가시게 해 주었구나!”

우리는 그분의 가족과 내 가족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침례와 확인을 받았으며 두 가족 모두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이 우리를 조상들과 연결해 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생존해 있는 친척들과 나에게도 적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가족 역사를 통해 영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삶에서도 가족의 단합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 ■

키시 리컬메 로하스, 칠레



어느 날 어머니의 일지를 훑어보다가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했다.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
철심인

개인 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 기도에 귀 기울여 본다면,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신성한 권유는 기록으로 남겨진 모든 경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계명이자 개인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의미 있고 계시가 뒤따르는 개인 기도를 하려 하지만, 잘 하지 못합니다.

교회 회원, 특히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개인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는 영적인 힘의 척도이자 영적인 복지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의 깊게 들어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이자 신권 지도자,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개인 기도의 원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며, 자비심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관한



사진 출처: 레 벨스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실재성을 보여주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볼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분께는 우리를 지탱하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역량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꺼이 용서하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 내어서, 또는 머리와 마음속으로 생각과 느낌의 형태를 빌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엄숙하게, 성스러운 말과 감사로 드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도움과 소망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간구를 드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받아 깨끗해지게 해 주시도록 간청하고, 위안과 인도, 계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슴 속 깊숙한 데서 우러나는 생각과 느낌을 토로합니다.

기도는 흔히 짧은 대화로도 할 수 있지만, 밤낮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솔직한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엘마서 34:27 참조)

개인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우리가 그분 면전에서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이해하고 지킬 만큼 충분한 신앙이 생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유혹을 피하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회개와 용서, 그리고 깨끗하게 해 주는 속죄의 힘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 기도의 힘이

더해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신을 통해 개인적인 계시와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영적 경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성신과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실재성을 보여주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도 준비

우리는 종종 아침에 잠에서 덜 깨어난,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기도하거나, 늦은 밤에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기도를 하는 데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피로가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정신적, 영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드리려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확립된, 기도라는 신성한 패턴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슴 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신중하고도 겸손하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성신을 초대하십시오. 소리 내어 기도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며 자신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필요 사항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과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할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분을 그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분의 이름, 즉 구주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마음을 집중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자신 있게 설 수 없습니다. 외설물, 성적인 범법, 정결을 조롱하거나 부도덕을 조장하는 오락물을 가까이 한다면 기도할 자신감이 사라지며 영적인 속삭임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없다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는 오직 사탄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심지어 순종이나 개인적인 합당성 문제로 힘겨워할 때조차도 성신은 언제나 기도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

기도는 계시를 받는 과정에서 필수입니다. 영감에 따라 질문할 때 좀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목적과 의미가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 더 많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자 한다면,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시는 보통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집니다. 계시를 받으려면 경전을 찾고 깊이 생각한 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감에 따라 질문하도록 성신이 도와줍니다.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킨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제3니파이 18:19) 한다고 여러 번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는 것이다. ……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실 만한 것]을 간구한다. 어떤 기도들은 응답되지 않는데, 이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바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 사람의 이기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경전 안내서, “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신앙이 아니라 헛된 희망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협상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점으로 보시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는 우리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기도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킬 때 응답과 영적인 힘이 더 자유롭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약 20년 전에, 저의 다섯째 아들인 벤자민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벤자민의 눈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와드에 다니는 절친한 친구인 망막 전문의와 상의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염려하던 대로 벤자민의 눈에 망막모세포종이라는 희귀 암이 자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는 우리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기도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몇 주 후, 벤자민은 첫 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 우리는 의사에게 벤자민의 안구를 제거하지 않고도 완치되게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와 많은 와드 회원이 벤자민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우리는 벤자민이 나올 것이라는 큰 신앙이 있었습니다.

1시간 후에 돌아온 의사는 벤자민의 눈이 암 세포로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나머지 눈마저도 심각한 종양이 생겨 즉시 치료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고, 비탄에 빠져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축축한 샌프란시스코 아침 거리를 슬피 울며 걸었습니다.

저는 하라고 배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이 의사를 선택하라는 강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했고 어린 아들이 신앙과 신권 권능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확신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헛된 희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믿어 왔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아침에 길을 걸으며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그다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분명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저나 제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저는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문득 초등학교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인가요 어린이 기도 듣고 응답하나요”(“어린이 기도”, 어린이 노래책, 6쪽)

바로 그때, 부드러운 자비가 제게 임했습니다. 제 머리와 가슴에 “케빈,

그는 내 아들이기도 하느니라.”라는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그 분명한 느낌을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기도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기만 의로우면 신권과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결정할 권한이 제게 없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함을 알았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행하고 배우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뜻에 제 뜻을 맞추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6년 동안 아들의 남은 눈 한쪽과 그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일이 어떻게 풀려 나가든 간에 그분은 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그 아들은 현재 스페인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실제로 우리 기도를 듣고 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저는 삶을 통해 얻었습니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개인 기도의 신성한 원리를 계속해서 배워 나가고 이해한다면,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영적인 힘과 계시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

2011년 5월 17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devotional.byuh.edu에서 볼 수 있다.

“형이 외설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형은 감독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도 형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형에 대한 저의 신뢰감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형

을 돕고 싶은 마음이 참 훌륭합니다. 형은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은 동생에게 자신이 이 문제를 겪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동생인 형제님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은 형제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흔히 그렇듯 숨기거나 기만하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큰 발전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형제님은 형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신뢰가 온전히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형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모범을 보이며, 형에게 도움이 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형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형이 판단받는다고 느끼면 자신이 겪는 힘겨운 싸움에 대해 아마 더 좌절하게 되고, 변화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주께서 속죄를 마련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형이 회개하여 변화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형이 감독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감독님과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감독님과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 형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형을 위해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17:21 참조) 이것은 유혹에 맞설 방패가 될 것입니다.

주: 많은 청년들도 외설물 중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언은 자매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슬픔을 보이되 배척하지는 마십시오



외설물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외설물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몹시 아플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용서하려고 하십시오. 또한 용서와 신뢰는 별개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형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형에 대한 형제님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보이되 배척하지는 마십시오. 형은 자신이 외톨이가 아님을 느껴야 하며, 아울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이 외설물에 중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님이 형을 사랑한다면, 형은 희망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문제를 극복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베서니 에이, 18세, 미국 애리조나

형을 격려하세요



깊이 신뢰해 온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린다면 참기 힘들 것입니다. 저라면 제일 먼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형과 이야기할 힘을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매주 형에게 어떤지 물어보고, 개인 경전 공부를 하면서, 형이 주께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하는 성구를 찾아볼 것입니다. 비록 신뢰를 저버렸다 할지라도 형을 지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형을 사랑하시며, 형을 용서하시리라는 것을 형에게 알려 주십시오. 형에게 찬송가 109장 “우리를 사랑하셔서”를 상기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회개한다면,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음을 알려 주십시오. 나오미 비, 16세, 미국 미네소타

형을 지지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형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형이 외설물 중독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한 순간에 모두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형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형이 더 나은 사람이 될 방법을 배우고 있듯이, 형제님도 형을 다시 신뢰할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커스틴 엠, 17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용서하세요

속죄의 힘을 적용한다면, 형이 회개할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속죄는 상처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치유합니다. 언제나 용서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사랑을 보이세요.
 세스 비, 18세, 미국 미주리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인도를 구하세요. 그런 후에 형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그분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고린도전서 10:13) 것입니다. 그분은 형이 유혹에 굳건히 맞서고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알레한드라 비, 22세, 미국 캘리포니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형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형에게 가족이 필요할 때일 테니까요. 외설물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가족의 신뢰를 잃을까 걱정하는 것을 차치하고 그 자체로 이미 형에게 충분히 힘겨운 문제입니다. 저도 같은 문제를 겪었으며, 지금은 회개하여 성전에서 가족과 인봉될 수 있을 만큼 합당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가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지지해 주시는지,

얼마나 열의를 다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우려고 애쓰시는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형이 감독님과 상의하고 진솔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면 형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남, 미국 알래스카

주님을 신뢰하세요



속죄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두를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께 나아간다면 여러분을 들어올리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과, 속죄의 치유하는 힘을 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그 상황과 관련한 근심, 걱정, 소망을 모두 말씀드리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해요. 경전을 공부하고, 도움이 될 지혜를 찾으며,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는 신앙을 간직하세요.
 매건 에이, 19세, 미국 애리조나



잘못을 바로잡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멸의 세상에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로마서 3:23) 부정적인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여 진로에서 이탈하게 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운 참된 회개의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요한복음 3:16) 수 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몇 도의 차이”,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0쪽.

다음 질문

“성찬식 시간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7월 15일까지 liahona.lds.org 또는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거나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7/12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교회 역사가,
철십인

교회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긍정적인 것들이며, 우리의 신앙을 증진합니다.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교회 역사는 참으로 영감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집을 버리고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성도들과 함께 모여들었던 초기 교회 회원들의 역사를 즐겨 읽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며, 선지자를 따르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 신앙대로 살고 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공부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이 한 일들을 읽을 때면 여러분 자신이 겪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사랑합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교회 역사를 읽고 있으며, 교회 역사가 참으로 훌륭하고 신앙을 증진시켜 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타오르는 신앙과 간증 외에는 별다른 자원도 없던 초기 선교사들이 그토록 위대한 일들을

성취한 것을 보면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의 모범을 보면서 저는 신앙과 간증을 계속 키워 나간다면 어려운 일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위대한 일들이 전개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간증은 강해졌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며

역사는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고취하는 훌륭한 방편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극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 기도, 간증에 전념할 때 위대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으며, 영적인 면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쏟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 역사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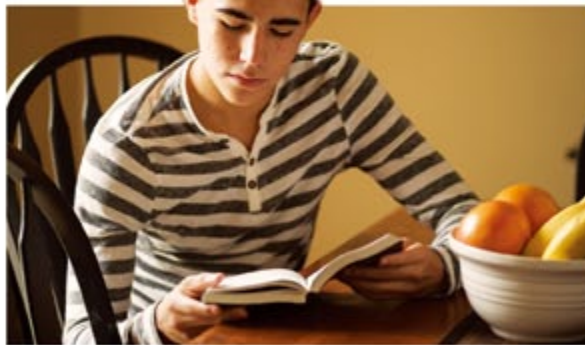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며, 그중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온전해지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기 교회 회원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힘겹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오랫동안 완벽해지고자 노력해 왔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 한두 세대를 거치면서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닥하면, 교회 역사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좋거나 나쁜
것, 진실이거나 거짓인 온갖 정보가
넘쳐납니다. 교회 역사에 관해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읽고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 역사에 접근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천사나 땅에 묻힌 금판 등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일부 이야기는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역사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범위를 벗어날 때 그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실 때 일어났던 다른 기적적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며, 간증을 나누고 직접 공부해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모로나이서 10:4)해 보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고 이 “시험”(앨마서 32:27)에 기꺼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여쭙어 본다면 성신은 그들에게 진리를 밝혀 줄 것입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일부 정보는 전체 맥락이 없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당혹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정보는 대개 매우 주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역사를 더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자료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부 웹사이트는 매우 악의적이며,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제시합니다. 저명하고 존경받는 역사가들의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반몰문 자료에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에 대처할 만큼 자신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영적인 면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갑자기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에 충실할 때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반몰문 기사를 비롯해 온갖 시련에 맞설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성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사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나 소수였고, 우리는 항상 표적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또 거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시련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합당성을 굳건히 하고 간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쏟는 시간보다 교회와 그 역사를 비난하는 웹사이트에 더 많은



교회 역사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을 공부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쏟고 있다면, 균형이 깨질 것이며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한테 매우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균형이 잘 잡혀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 대 시절에 저는 영적으로 발전해야 할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물몬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훌륭한 학생이 되기보다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처럼 선교사 임지에 가서야 비로소 큰 변화를 겪었고 진정한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길 때,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 서로를 사랑하고 도울 때 오는 기쁨이자 평화였습니다. 삶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할 때 삶이 방향을 잃고 제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모든 것은 균형을 더 잘 잡아갔습니다.

삶에 균형이 잡히자, 저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조상 대부분이 존경스러운 분들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 인간이기에 실수를 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 중에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슬프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 중에는 회장이 편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일 어느 친구가 교회 역사에서 논쟁이 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질문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 답해 줄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쪽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제가 그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물몬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인생의 폭풍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긍정적인 것들이며, 우리의 신앙을 증진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을 공부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역사의 전체 그림을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보면, 교회 역사는 정말 영감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조셉 스미스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필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에 담긴 계시를 읽어 보고, 짧은 시간에 교회 회복을 위해 한 일을 보면, 그가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선지자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시련을 겪은 것과, 그가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여겨졌다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교회 회원이 되기에 좋은 시기는 없는 듯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했을 당시 전 세계에 성전은 열세 곳뿐이어서, 우리는 모든 성전을 다 가보자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제는 140여 곳에 성전이 세워져서 다 가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결실들, 즉 선지자와 사도, 성전, 신권, 물몬경, 계시는 우리 삶에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주, 그분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많은 면에서 어리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만큼은 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아들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관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점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택의지를 배우고 행사하며 역경을 헤쳐 나가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저는 참으로 그분의 손길이 저와 제 가족의 삶에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필멸의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삶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잘못되는 일들도 많지만, 좋은 일들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때 기회를 받아 이 지상으로 와서 육신을 입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을 배우게 된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역사는 되돌아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축복이 됩니다. 때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축복했던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조상들을 축복했던 것들을 행하면,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의 강한

간증은 어떤 장소에서도, 평범한 어느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신은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응답을 찾다

어릴 때 어느 여름 날 저녁에 뉴욕 주 팔마이라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성스러운 숲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성스러운 장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미 제가 진심으로 알고 있던 일에 대해 확신이나 표시를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건한 태도로 온 마음을 쏟아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성신으로부터 어떤 대답이나 느낌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하고 실망한 채 떠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된 거지? 왜지? 뭐가 더 필요했던 걸까?” 하고 의아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에 그곳만 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그대로 해 주시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실지를 정하는 것은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영의 속삭임이나 계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지는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집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구하였으나 받지 못했던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은 5~6주 뒤에 왔습니다. 집에서 물몬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간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성신을 통해 제 믿음과 간증이 옳다는



속삭임

것을 확인해 주는, 강한 인상과 느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몹시 강렬한 영적 교통을 느꼈기에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참으로 순수한 대화였습니다. 영은 말에 제약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이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영과 영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통은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순수한 지식과 예지의 대화이며 저는 그것이야말로 지식을 습득하는 최고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통은

만지거나 보는 것보다 더 강하고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신체 감각은 의심에 이르게도 되지만, 성신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의심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성신은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신이나 성신의 간증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를 느끼며

저는 진심으로 주님께서 성스러운 숲에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신 것을 섭섭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팔마이라로 성지 순례를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어느 곳에서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만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증은 어떤 장소, 평범한 어느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신은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아십니다. 그들은 비자도 필요 없으십니다. 사실 그들은 전 세계를 아십니다! 그들은 이미 아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계속해서 충실하고, 주님께 간구한다면 제게 주셨던 것과 같은 응답, 같은 간증, 같은 확신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분은 저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무한합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며 또

성신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다가설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간구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명을 지키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강한 간증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한 번만 받고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거를 받아서

제게도 그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투쿠만에서 봉사할 당시, 한 가족을 가르치면서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 가족은 믿지 않았습다. 그러나 간증을 나누는 그 순간, 저는 제 간증에 대한 또 다른 확신을 얻었습니다. 영은 제게 “네 간증이 참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은 저에게 제 간증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살아 계시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부르셔서 회복의 선지자로 일하게 하셨고, 그분의 아들 또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충만한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은 삶을 살아가는 내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는 특별한 증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살아 계시며, 말 그대로 부활하셨고, 자신의 이름을 따르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도하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그분의 양들임을 압니다. ■

2011년 11월에 아르헨티나 살타의 청소년들에게 전한 말씀에서 발췌함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가슴이 너무도 시리고 외로움에 사무쳤던 그때, 복음을 알았기에
전진해 나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아마사나 이

나는 몽골 북부에 있는 버크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그곳은
우리 교회가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다. 나는 삼 형제 중 둘째였고
우리는 늘 함께 어울리며 자랐다. 형이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간 뒤로 나는 형을
몹시 그리워했다. 형은 2년 후에 여름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왔다. 그 해
여름에 우리 가족은 바위 언덕으로
3개월간 사냥을 갔다. 내 생애에서 가장
멋진 여름 방학이었다.

형은 자신이 가입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기독교회를 좋아하지 않았던지라 형의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니
도시에서 형을 찾아 온 사람들이 있었다.
형이 말한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그들과 함께 도시로
돌아갔다. 이후 우리는 형이 떠난
이유를 듣게 되었다. 선교사 부름을

받은 것이었다. 형은 선교사 지원서를
보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형은 곧
미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복음으로 개종하여

이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내가 머물던
곳은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회원 가족의
집이었다. 일요일 아침에 그 가족은 함께
교회에 가자고 내게 권했다. 이 교회에
대해 많이 들었던 터라 나는 한 번 가



가장 힘든 시기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인생의 가장 평탄한 시기 못지않게 가장 힘든 시기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만 하면, 우리 삶을 형성하고 인도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계시로 알려 주시는 선지자들이 계시니,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품고 화평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올라야 할 산”,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26쪽.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여러 번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나는 평화를 느꼈다. 교회 사람들은 친절했고 언제나 악수로 반겨 주었다. 교회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참 달랐다. 곧 선교사들과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과는 거의 2년간을 만났다.

침례를 받고는 싶었지만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 침례를 미뤘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나는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 운이 좋게도 귀환한 지 몇 달 안 된 형에게서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끔씩 눈물이 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교회에 들어온 후 형은 거의 매일 선교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제나 나더러 선교 사업을 하라는 말도 했다. 형의 도움으로 나는 선교사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때 형과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어느 저녁, 형은 일을 마친 후에 와서 만나자고 말했다. 형은 내 선교 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우리는 중앙 광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시간을 정했다.

그 무렵 몽골에서는 의회 선거가 한창이었다. 중앙 광장에서 만났을 때 시민들은 선거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있었으나 시위가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더니 급기야 폭동으로 치달았다. 큰 건물과 차량 몇 대가 불탔고 사람들은 고향을 지르기 시작했다. 끔찍한 상황이었다.

형과 나는 시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났지만, 형은 걱정스러워했다. 형은 택시비를 주면서 나더러 곧장 집으로 가라며 내일 보자고 말했다. 형도 직장 근처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가려 했다. 택시가 왔고 나는 짧게 인사를 한 후 그곳을 떠났다.

나는 곧 정부가 그 폭동 때문에 모든 도로를 차단해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은 도시 외곽에 있었기에 돌아갈 수 없었고, 나는 회사에서 밤을 보냈다. 장갑차와 무장 군인들이 도처에 깔렸다. 폭동은 더 심각해졌고 그날 밤 비상 경계령이 떨어졌다. 그 상황은 나흘 간이나 지속되었다.

비상 경계령이 해제되자 매형이 나를 데리러 왔다. 매형의 집에 도착하자 모든 친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울고 있었다. 형이 걸어서 집에 돌아가다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심장이 터져 버릴 것만 같았다. 형은 그 시위로 24세에 세상을 떠났다. 형이 죽은 후 내 인생은 정말 끔찍해졌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나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개종과 침례, 선교사 추천서 준비를 모두 형과 함께했는데, 선교사 부름장은 혼자서 열어야 했다. 놀랍게도 나는 몽골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곧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나는 형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 가슴이 너무도 시리고 외로움에 사무쳤던 그때, 주님의 영은 내게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을 가슴 깊이 전해 주었고, 내 신앙은 강화되었다.

그분의 계획에 대한 간증

선교사 부름장을 열었을 때 형은 곁에 없었지만 나는 늘 형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계획을 마련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히 여긴다. 구원의 계획은 정말 놀랍다. 이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마음에 평화를 느끼게 된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는 …… 하나님의 낙원이 의인들의 영을 반드시 내놓겠고, 무덤이 의인들의 몸을 반드시 내놓을 것임이라. 그리하여 영광 육신이 그 자체로 다시 회복되어, 만인은 썩지 않을 것과 불멸의 것이 되나니, 그들은 산 영혼이라.”(니파이후서 9:13)

나는 형이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음을 안다. 나는 이 지식에서 선교 사업을 잘 해낼 자신감을 얻는다. 내가 힘들어할 때 형이 함께해 줄 것이며 주님이 또한 그렇게 해 주시리라는 것도 안다. ■



왼쪽부터: 아마사나, 형인 오르주스련과 아마사이칸





신권 지도자의 권고를 따르는 다섯 가지 방법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구 주께서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로 친히 오셔서 함께 머물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의 교회 회원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이 성신을 통해 받은 권고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계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계시는 영을 통해 개인에게 올 수 있으며, 특정 부름을 받고 성별된 신권 지도자들은 계시를 통해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교회 전체와 관련한 계시를 받습니다. 지역 회장단은 지역에 대한, 스테이크 회장님은 스테이크에 대한, 감독님은 와드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는 부름에 맞게 이러한 개인들에게 오지만, 모든 계시의 근원은 똑같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른팔을 직각으로 들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이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도록 존경하고 공경하며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지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지혜와 안목이 있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할 때 신앙이 자라고 간증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권 지도자의 권고를 따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1. **연차 대회, 스테이크 대회, 와드 대회에 참석하십시오.** 기록할 종이와 필기구를 가져가십시오. 신권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이나 해야 할 일, 혹은 자신의 삶에서 바꾸어야 할 부분들을 적어 보십시오. 신권 지도자들이 다른 교회 모임이나 접견 중에 하는 말씀도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2. **지도자가 전하는 권고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신은 주어진 권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께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3. **권고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 선지자들은 교회

여러분 지역의 지도자를 지지하기 위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봉사 부름을 받아들인다.
- 부탁받은 일을 돕는다.
- 사전에 공과를 미리 읽어 보고 준비한다.
-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 공과에 참여한다.



대화에 참여하세요



6 월 한 달 동안 청년반, 주일학교, 신권 정원회에서는 신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신권에 관해 무엇이 궁금한지, 신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신권 지도자들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달 공과 시간에 신권 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시오. 또한 신권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된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신권에 관한 생각을 적어 집이나 교회,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회원들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대학에 갈 것입니까? 아니면 직업 학교로 갈 것입니까? 어떤 것을 공부할 계획입니까? 언제 갈 예정입니까?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4. 지도자들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 자료를 읽음으로써 지도자들이 최근에 전한 권고가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좋은 자료입니다.

리아호나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와드나 지부에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면,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읽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연차 대회에서 지도자들이 전한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5. **당장 시작하십시오.** 때때로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는 것을 미루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고를 실행으로 옮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



나는 감독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7 학년을 마칠 무렵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매일 밤 기도했고 교회 활동에도

참석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다. 몰몬경을 읽고 교회가 정말 참된지 알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 봤지만 안락한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까 봐 몹시 두려웠다.

감독단은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경전을 규칙적으로 읽으라고 권유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는 했지만 도무지 시간이 나질 않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몰몬경을 읽고 나서 그 책이 참된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평안을 찾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고, 1장을 반도 다 읽기 전에 예전엔 한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영을 강하게 느꼈다. 아주 평화로워서, 나는 그 느낌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지도자들이 영감에 따라 몰몬경 읽기에 도전하라고 권유한 것에 감사드린다. 지도자들은 내가 영적인 문제를 겪을 때 늘 도움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나는 복음이 참됨을 안다. 나에게 큰 축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캠린 지, 미국 유타



데이비드 엘 벡
본부 청남 회장

감사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가득하다면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2011년 여름에 미국 뉴멕시코의 필몬트 스카우트 랜치에서 조시 라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조시는 아버지를 도와 창고를 청소했습니다. 670킬로그램이나 되는 철제 기둥을 옮기던 중 사슬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기둥이 조시를 덮쳐 목부터 발까지 짓눌러 버렸습니다. 조시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기둥 아래에 깔린 아들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응급 구조대원들이 와서 조시를 병원으로 데려 갈 때까지 아버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조시는 여전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조시는 며칠 동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필사적으로 조시의 깨진 두개골과 산산조각 난 힘줄을 다시 잇고 다른 심각한 상처들을 치료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 끝에 조시는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뒤 조시는 멀고도 느린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조시는 그 사고로 여러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눈 한 쪽도 손상되었고 한 쪽 귀는 약간 멀게 되었으며 머릿속에는 금속 판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시는 이 시련을 축복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조시는 목숨을 구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임을 압니다. 조시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시련 속에서 감사하며

최근에 열린 청소년 대회에서 조시는 가족, 친구, 이웃, 와드와 스테이크 지도자들의 기도과 금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련이라기보다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조시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다음 가르침에 대한 훌륭한 모범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시의 회복은 더디고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조시는 그 사고로 여러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그 사고를 시련이라기보다는 축복으로 여깁니다.





감사에 관한 주요 개념

“주님은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에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십시오.

.....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18쪽.

생활한다면 삶에서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시련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할 만한 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¹

우리가 감사할 때, 조시가 겪은 것과 같은 힘든 시련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해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분의 애정 어린 자비를 모른 채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몰몬경의 선지자 모로나이는 감사함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모로나이서 10:3)고 격려했습니다.

성신으로 도움을 받고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간과하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신입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하나님의 친절을 인식하고 기억할 방법을 찾으라”²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한다면 우리 마음은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주님을 따르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느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느낌들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 충실함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훌륭한 일에 대해 감사한다. 여러분은 매사에 미치는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여러분은 그것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³

축복을 인식할 때 간증이 자라납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주님의 손길을 더 많이 볼수록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삶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⁴

이렇게 감사드릴 때 주님을 따르며 봉사하는 삶, 즉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18쪽.
2. 헨리 비 아이어링,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어다”, 리야호나, 2007년 11월호, 68쪽.
3.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12-13쪽.
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18쪽 참조.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

김벌리 사빈 플럼

단순한 감사 편지 한 장이 할머니에게는 큰 의미로 와 닿았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종종 사촌과 나를 돌봐 주셨다. 우리 손자들 열네 명은 할머니께서 저녁을 차려 주시거나 할머니 댁에서 잠을 자고, 밤에 놀이를 할 때, 그리고 명절 때 우리를 초대해 주실 때면 늘 신이 났다. 할머니 댁은 그야말로 최고였다!

할머니 댁에서 한 모든 일이 재미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활동을 준비하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할머니가 하신 거구나 하고 생각했고, 그것이 좋았다!

할머니 댁에서 사촌들과 쌓은 다년간의 즐거운 경험을 뒤로한 채 우리 가족은 이사를 갔다. 나중에 할머니는 새로 이사한 우리 집에 오셔서 특별한 날을 함께 보내셨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께 딱 맞는 선물을 마련하려고 오랫동안 열심히 고민했다. 할머니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갖고 계셨다. 모든 것이 다 있으신 분께 뭘 드리면 좋을까?

아빠께 의견을 여쭙자, 매년 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할머니께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드리렴.”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딱히 뭘 선물해야 할지를 몰라서 나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타일 바닥 냉기를 무릅쓰고서 식탁에 앉아 할머니께 특별한 편지를 썼다.

“할머니는 정말 최고예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려요.” 처음에는 이 말 외에 다른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주방 창문 너머로 야자수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랫동안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하셨던 많은 일을 떠올려 보았다. 나는 가족으로서 함께 보낸 그 순간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할머니께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게 생각났다.

나는 할머니를 사랑하며 그 모든 특별한 추억들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나는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그러한 추억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를 말씀드렸다. 그런 후 편지를 봉투에 넣고서는 빨간 리본으로 묶은 뒤 카펫이 깔린 따뜻한 내 방으로 돌아갔다.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천천히 편지를 꺼냈다. 할머니께서 내 선물을 받고 어떤 기분이

드실지는 상상이 잘 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가 봉투를 내밀자 놀라신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가 봉투 끝을 조심스럽게 찢어서 얇은 분홍색 편지지를 꺼내시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 보았다. 편지를 읽으시는 할머니의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우시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천천히 고개를 드신 할머니는 따스함이 담긴 갈색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셨다. 할머니는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아무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단다.” 하고 속삭이셨다.

가족간에 돈독한 유대를 만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할머니는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지, 함께한 그런 시간에 감사해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이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김벌리, 고맙구나. 여태껏 받아 본 선물 중에서 이게 최고란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살결이 내 뺨에 느껴졌고 베이비 파우더와 머스크 향이 섞인 “우리 할머니”의 냄새가 났다. 할머니께 편지를 쓰라는 아빠의 제안이 정말이지 감사했다.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장신구, 향수, 과일 케이크 등과 같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말과 사랑이 할머니께 더 큰 의미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

저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지니고

우리의 매일을 최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말과 행위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7쪽.

나쁜 영화

영화 제목을 보자 에블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 우드버리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것만을 읽고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 표준)

테 일러 선생님이 교실 앞으로 나오시며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블린은 시험지에서 눈을 떴고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맨 위에 커다랗게 “A+”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테일러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답니다. 상으로 내일 영화를 볼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며 칠판에 영화 제목 세 개를 쓰셨습니다. “이 영화 중에 골라 보세요.”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에블린은 어떤 영화 제목인지 보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번, 2번은 에블린이 좋아하는 영화였습니다. 에블린은 친구인 케이티에게로 몸을 기울여 “어떤 영화를 고를 거니?” 하고 물었습니다.

케이티는 “물론 3번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 영화를 집에서 절대 못 보게 하셔서 볼 기회가 없었어.”

에블린은 칠판에 적힌 3번 영화 제목을 다시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블린은 그 영화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었고, 봐서는 안 될 영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 친구들이 3번 영화를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테일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에블린은 손을 높이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을 든 사람은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표시하셨습니다. “2번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에블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 사람만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번 영화는요?”

1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블린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모두들 그 영화를 보겠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곳곳에 난무하는 악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영적 및 도덕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9쪽.

것이라고 설명하는 엄마의 쪽지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에블린이 좋아하는 영화 세 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쪽지를 테일러 선생님께 건넸고, 쪽지를 읽으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테일러 선생님은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려 줘서 고맙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블린은 “엄마는 영화를 보는 시간 동안 다른 반에 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영화 말고 모두가 보고 싶어할 수도 있는, 다른 영화 DVD도 가져왔어요.”

테일러 선생님은 웃으시며 그 DVD 케이스를 열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없다면 영화가 상이 될 수는 없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새로운 영화 제목을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영화에 대한 투표를 할게요.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영화들이 있어요.”

에블린은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을 놓치지 않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훌륭한 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블린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용기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

집에 도착한 에블린은 곧장 방으로 올라가 책가방을 방바닥에 쿵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온종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에블린은 ‘차라리 정말 아프면 좋겠어. 그러면 내일 학교에 안 가도 되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블린은 책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내어 와락 움켜쥐고는 노려보았습니다. “영화 보는 게 상이 되어야지 어떻게 별이 될 수 있담?” 에블린은 화가 나서 시험지를 구겨서 침대 아래로 던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에블린은 침대가에 꿰어 앉아 훌쩍거리었습니다. 그런 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뒤엉킨 몇 마디 말로, 에블린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려움을 없애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에블린은 다른 식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분이 나빠질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아요. 제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블린은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떨리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이젠 들지 않았습니다.

에블린은 별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와 엄마를 찾았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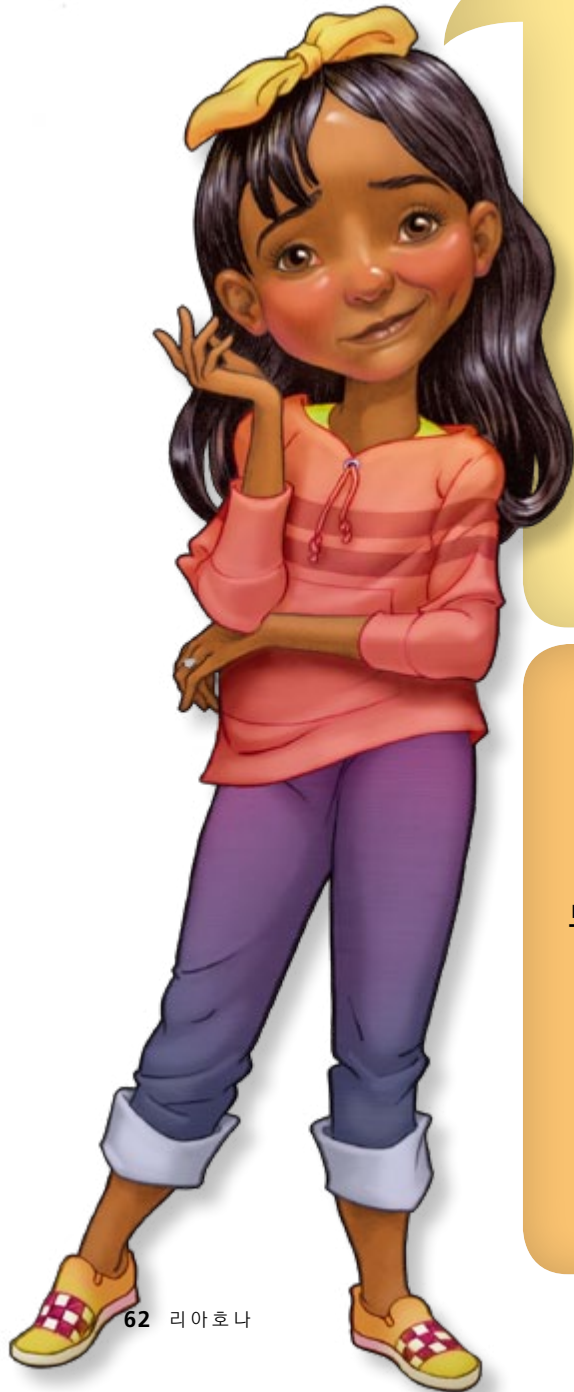
다음날, 에블린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에블린의 한쪽 손에는 그 영화를 보게 된다면 에블린이 불편해질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회원들을 더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세 엘 알론소 장로
칠십인 정원회

병상에서 드린 기도

저는 멕시코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형제자매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라났습니다. 매일 숙제와 집안일을 끝낸 후에는 축구를 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서로 상대 팀이라 상상하며 놀았습니다.

어느 날,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잠시 쉬어도 봤지만, 여전히 숨을 잘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더 심해져서 결국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병실에는 다른 어린이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가족들이 보고 싶었고, 무척 외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매일 낮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지만, 오히려 더 증세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결국 저를 퇴원시켰는데, 저는 그다음 한 해를 꼬박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 약도 많이 먹었고 주사도 두 번씩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저를 낮게 해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서 책을 읽다가 잘못해서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책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제가 정상적으로 숨을 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을 다시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책을 다시 주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거울 속에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보이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어린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언제나 쉽게, 당장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십니다. ■

나는 침례와 확인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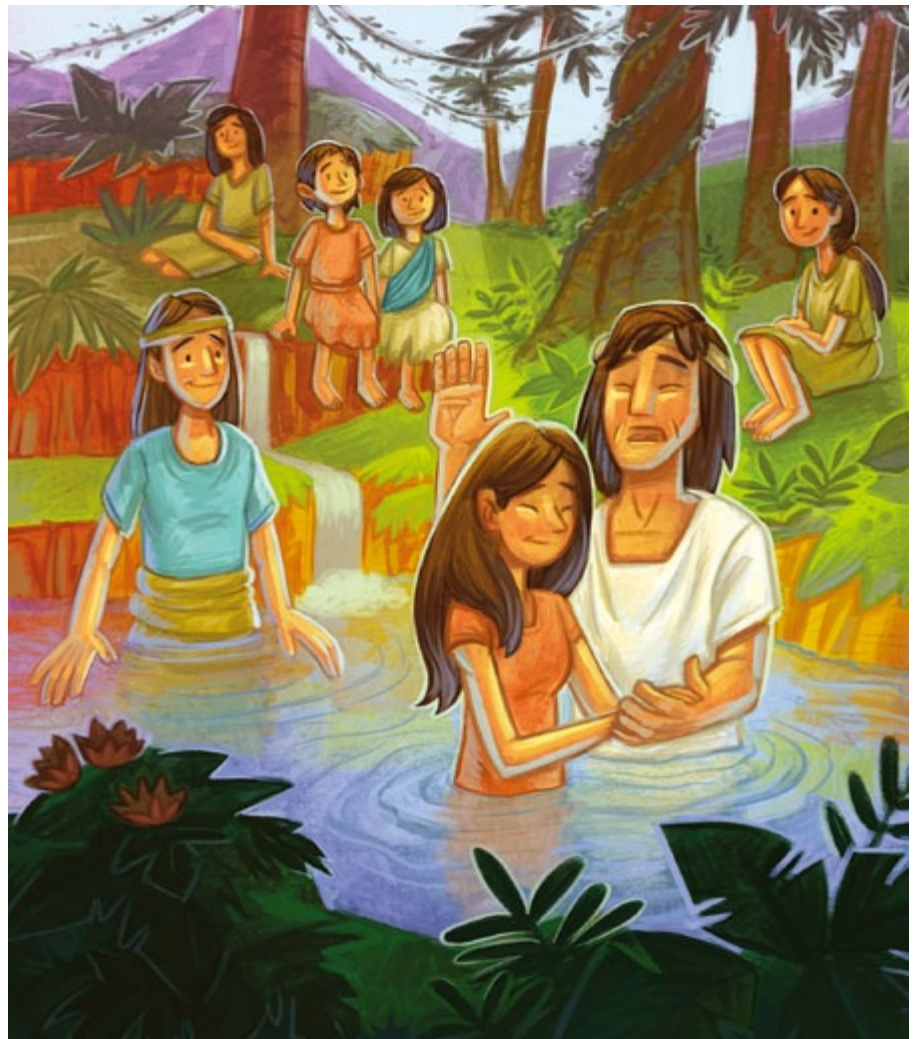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우리는 확인을 받을 때 엘마의 백성이 받았던, 놀라운 약속을

똑같이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성신이 늘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물 문경에는 물몬이란 숲에 함께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엘마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엘마는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을 가르친 후,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을 맺고 싶은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엘마는 침례를 받는다면 성신이 언제나 함께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모사이야서 18:7~10 참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큰 행복을 느껴 “기쁨으로 손뼉을”(모사이야서 18:11) 쳤습니다. 엘마는 물몬의 물에서 200여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물몬의 숲은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구주에 대해 배웠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모사이야서 18:30 참조)

엘마의 백성처럼 우리도 침례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받았던 때를 기억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그분을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께 여기에 실린 그림을 오려 봉투에 넣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봉투에서 차례대로 그림을 꺼냅니다. 각 그림과 일치하는 문장과 경전 구절을 찾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물론 기쁨, 친절, 온화함과 같은 좋은 느낌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성신은 종종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갈라디아서 5:22~23 참조)

이야기해 봅시다

침례와 확인을 받은 사람에게 그 특별한 날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이미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와 확인을 받았을 때 들었던 느낌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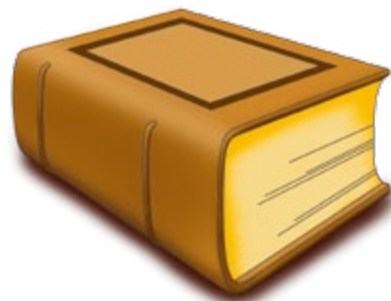
성신은 위험을 경고해 주며, 조심해야 할 때를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교리와 성약 9:9 참조)



성신은 선생님입니다. 성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며, 부모님, 선생님, 경전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요한복음 14:26 참조)



성신은 우리를 인도하며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니파이후서 32:5 참조)



때때로 성신은 보혜사라고도 불립니다. 성신은 부드러운 담요처럼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를 느끼도록 도와줍니다.(요한복음 14:16, 27 참조)



경전 구절과 노래

- 모사이야서 18:8~11
- “나 침례 받고 나면”
(어린이 노래책, 53쪽)



침례와 축복

트레버는 물에 잠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트레버는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케이지 에어

트레버는 턱을 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제들은 할아버지와 놀고 있었습니다. 트레버도 함께 재미있게 놀고 싶었지만 침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트레버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니?”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가서 놀고 싶지 않니?”

트레버는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트레버를 바라보시더니 팔로 안아 주셨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게 여전히 두렵니?”

트레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 속에 잠기는 생각을 할 때면 언제나 겁이 났습니다. 세 살 때 수영장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구해 주기 전까지 물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갔을 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절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트레버는 그때 이후로 물가에 갈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왜 소용이 없을까요?” 트레버가 물었습니다. “기도도 했고 침례탕도 가 봤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걸요!” 트레버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실 문을 콧 닫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조금 있자 조용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레버가 고개를 돌리자 아빠가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침례 받는 것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구나.”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트레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도 무서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빠는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때로는 뭔가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즉시 실현되지 않을 때도 있단다. 지금은 무서워도 내일이면 기분이 더 나아질 거야.”

트레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교 입학을 앞두고 겁을 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아빠는 트레버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받는다면, 침례받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트레버는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잠시 후 트레버는 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께서 트레버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빠는 트레버에게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안과 화평을 느끼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다음날, 하얀 침례복을 입고 침례식에 앉아 있는데, 트레버는 여전히 걱정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기뻐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침례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 아빠는 트레버에게로 몸을 숙이셨습니다.

“침례탕으로 갈 시간이구나.” 트레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를 따라 침례탕으로 갔습니다. 아빠께서 먼저 물 속으로 들어가셨고

트레버가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트레버는 주저했지만, 자신이 받은 축복을 기억했습니다. 트레버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행사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천천히 한 발을 물 속에 담갔습니다. 기분 좋은 따뜻한 물이 느껴졌습니다.

나머지 발도 담갔습니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트레버의 걱정과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빠는 트레버의 손을 잡으시고 웃어 보이셨습니다. “준비되었니?”

트레버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트레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트레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빠는 오른팔을 올리고 침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빠께서 트레버를 물 속에 잠기게 하셨을 때, 트레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트레버는 그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이 더욱 커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레버는 환하게 웃으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트레버는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저자는 미국 네바다에 산다.



“두려움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할 때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쿠엔틴 엘 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생활하십시오”,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73쪽.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사는
엔크흐진 에이예요



아직 애완동물이 없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 시골에 가는데, 거기서 소나 양, 낙타, 말, 염소 등을
볼 수 있죠. 겨울에는 거기서 눈사람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는 테렐지 국립공원에 있는 거북 바위인데, 남동생과
친구와 함께 왔지요.

가 족과 함께하는
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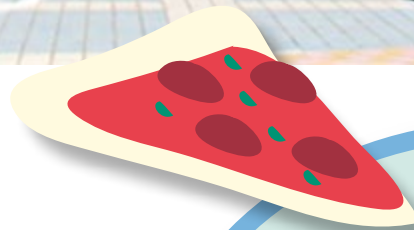
몽골에 사는 여덟 살
난 엔크흐진 에이는
가족과 함께 시골에
가서 딸기를 따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해요. 우리 가족은 매주
가정의 밤을 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또, 매일 물몬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지요. 그런
일들을 함께하면서 우리 가족은 더
친해졌답니다.





저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두 남동생과 살고 있어요. 울란바토르는 100만 명이 사는 도시이죠! 우리는 아파트 12층에 살아요.



이 사진에서 저는 남동생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고 있어요. 저는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3학년이죠. 수학과 미술도 좋아해요. 저는 반 친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커피나 차 대신에 우유를 마시라고 일러 주었어요. 또, 친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다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었죠. 우리 집에서 하는 가정의 밤에도 초대했구요.

엔크흐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음식—피자와 으깬 감자
경전 구절—니파이전서 3:7
노래—“그 어리신 예수”,
“물몬경 이야기”



목자와 잃어버린 양

마고 매이, 미국 유타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양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자는 아주 선하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야생 동물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밤에도 양 떼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99마리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양을 찾아 높은 산이며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양을 찾자 목자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자는 친구들을 불러모아 어떻게 양을 찾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양은 우리에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복음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누가복음 15:4)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행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교회, 몬슨 회장의 재임 동안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지도자로 봉사해 온 지난 5년 동안 교회는 전 세계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역사적 변화를 경험했다. 제16대 교회 회장의 깊은 영향은 선교 사업, 신권 지도자 훈련부터 수많은 성전 건축에 이르는 다양한 중대 발표 및 새로운 방침 시행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몬슨 회장이 교회를 인도하면서 시행한 많은 정책과 발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정책과 발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각각을 섬기고 보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몬슨 회장이 일생에서 보여 준, 사람을 향한 관심은 역사적인 각각의 순간에 자명하게 드러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5년 재임 기간에 있었던 다음 몇 가지 주요 사건을 살펴보자.

- 교회의 젊은이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로서 몬슨 회장은 2012년 10월 6일에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에 선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는 교회의 제182차 반연차 대회 개회 모임에서 이뤄졌으며, 선교 사업에 대한 열의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그 발표 후 교회

선교사부는 봉사하려는 열망이 가득한 젊은 남성과 여성들로부터 가히 역사에 남을 만한 수의 지원서를 받았다.

- 제일회장단의 두 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및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함께 서명한 서한에서 몬슨 회장은 교회 청소년들의 “신앙과 개심, 간증을 강화하고 쌓[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청소년 교과 과정이 2013년에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교과 과정은 구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방법을 따라, 아론 신권, 청년, 주일학교 청소년반에서 좀 더 상호 소통에 중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한다. 매주 공과 시간에 청소년들은 온라인에 있는, 수많은 현대식 교회 자료를 활용하여 그 어느 시대보다도 활발하게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다.
- 몬슨 회장과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교회는 지역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가족들이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개심을 심화하고자 기울이는 노력을 지원하고자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 훈련을 통해 지역

지도자와 회원들은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기타 총관리 직원 및 보조 조직 직원들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훈련 모임에서는 새로운 교회 관리 지침서(2010년에 소개됨) 사용 방법, 효과적인 평의회 운영 훈련, 신권을 통한 가족과 교회 강화 등을 배울 수 있다.

- 2010년에 제일회장단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신권 지도자 대회,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게 하는 두 가지 새로운 형태의 전 세계적인 모임을 시행하는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각 신권 지도자 대회에서는 지정된 교회 지역 내의 스테이크 회장단, 감독, 지부 회장이 이 훈련에 소집된다. 지역에서 검토를 할 때 지도자들은 특정 교회 행정 지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피고 인도주의적 봉사, 복지 필요 사항, 선교 사업, 가족 역사, 성전 사업 등을 점검한다.
- 몬슨 회장 재임 중에 전 세계 31곳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이 발표되었다. 성전 16곳이 헌납되었고 5곳이 광범위한 개조를 거쳐 재헌납되었다. 몬슨 회장은 캐나다 앨버타



2008년 2월 4일 월요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새로운 제일회장단을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켈거리 성전, 필리핀 세부 성전, 브라질 큐리티바 성전,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 성전, 유타 드레이퍼 성전, 미주리 캔자스시티 성전,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 유타 사우스 조던 성전, 애리조나 길라 밸리 성전, 아이다호 트윈 폴스 성전 헌납과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조지아 애틀랜타 성전, 아이다호 보이시 성전, 하와이 라이에 성전 재헌납을 직접 감리했다.

- 몬슨 회장의 재임 기간에 교회는 전 세계 약 1,400만 교회 회원들에게 선지자의 말씀과 교회 프로그램을 전하는 교회 온라인 자료에 유례 없이 많은 사람이 접속하는 시기를 맞았다. 온라인 하이라이트에는

신약전서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 시리즈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회 제작 영상물이 게재되어 있다.

-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교회에서는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이라는 새로운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여성들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 및 가족 자료로 만들어졌다.
- 몬슨 회장의 지도로 교회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응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다. 지난 5년간 있었던 몇몇 주요 인도주의적 대응에는 아이티 지진, 일본 지진 및 쓰나미, 태국 홍수 발생 뒤에 벌인 구호 활동 등이 있다. 교회는 또한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식량 위기에

대처하고, 여러 국가에서 어린이 예방 접종을 도왔으며, 오지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했다. 교회는 또한 미국 유타 솔트레이크시티에 5만 3천 제곱미터 면적의 새로운 복지 시설을 헌납했다. ■

주님의 일이 서둘러지는 것에 대한 지도자들의 토론

사라 제인 워버

처치 뉴스

후 기 성도 청소년들은 선교 사업 준비,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 주일학교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격려받는 변화를 겪고 있다. 지도자들은 이로써 교회 청소년들이 “행동하도록 부름 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교리와 성약 115:5) 요청받았다고 말한다.

칠십인 정원회 폴 비 파이퍼 장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는 바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권부 상임 이사인 파이퍼 장로는 최근 처치 뉴스(CHurch News)에서 주최한 워낙 토론에 참석하여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여러 측면의 변화에 관해 토론했다. 이 워낙 토론에는 칠십인이자 가족 역사부 집행 책임자인 앨런 에프 패커 장로, 칠십인이자 성전부 집행 책임자인 윌리엄 알 워커 장로, 칠십인이자 선교사부 집행 책임자 보조인 더블유 크레이크 즈위크 장로, 칠십인이자 교회 교육 총감인 폴 브이 존슨 장로, 지역 칠십인이자 가족 역사부 관리 책임자인 데니스 시 브림홀 장로, 그리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가 참석했다.

청남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는 나이 기준이 낮춰졌다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발표와 새로운 청소년 교과 과정, 가족 역사 조사 및 성전에 가족의 이름을 제출하도록 청소년 참여를 촉구하는 제일회장단 서한을 언급하며, 파이퍼 장로는 대회 전에는 “이 세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회에 가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손길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즈위크 장로는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리와 성약 88:77)라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해졌다고 말한다. 즈위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직접 이 일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시대 우리 청소년들처럼 교과 과정을 위해 잘 준비된 세대에 속했던 청소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보다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 및 의식을 더 많이 하거나 …… 성전 사업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가까이 했던 청소년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분명히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가 될 것이며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도 삶에서 주어질 여러 책임을 감당할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브림홀 장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신뢰하신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존슨 장로는 새로운 청소년 교과 과정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선교 사업 나이 기준이 조정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맞아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워커 장로는 청소년들에게 가족 역사를 완수하고 조상의 이름을 성전으로 가져가도록 격려한 제일회장단 서한을 언급했다. 워커 장로는 “청소년들이 제한 사용 추천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청소년들은 성전 사업을 하는 데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교리를 이해합니다. ……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을 위해 마련된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됩니다.”라고 말했다.

패커 장로는 최근에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간증을 전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청년은 “이 일은 어른들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처치 뉴스 사진 제공



재미있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워커 장로는 “그것이 엘리야의 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패커 장로는 청소년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며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도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은 “할아버지가 할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시며 교회 청소년들이 행동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다는 점에 동의한다.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느 한 성전 회장이 보고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청소년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을 때는 웃음을 띠지만 “자신의 조상을 위해 할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더 진지하게 임하며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파이퍼 장로는 청소년들이 시야를 넓히도록 돕는 것은 공과 교재 대신 학습 자료를 활용하게 하는 새로운 청소년 교과 과정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교과 과정을 통해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매주 일요일에 성전, 가족 역사 사업 및 선교 사업을 위해 청소년들을 준비시키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패커 장로는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은 가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가족 역사 센터도 가정입니다. 이러한 교육 형태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즈위크 장로는 부모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부모인 여러분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이 청남 청년들을 신뢰합니다.”

존슨 장로는 이러한 모든 변화로 “교회는 있어야 할 곳으로, 예언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주님은 미래에 대해 아시며, 이것은 그분이 왕국 건설을 앞당기며, 그것이 굴러나가게 하기 위해 하실 많은 일 중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파이퍼 장로는 이번 10월 연차 대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숙고해 볼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열쇠를 지니신 선지자께서 문을 활짝 열고 ‘여기 주님의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느꼈습니다. 교회 역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



크리스토퍼슨 장로, 중앙아메리카 회원들을 방문하다

돈 엘 설 장로
처치 뉴스 기고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2013년 1월 20일 파나마 아라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오늘날 교회 사업은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고 섬기려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중앙아메리카 방문 중에 청소년과 청년 독신 성인, 선교사, 지역 지도자 등과 모임을 하고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할 때 이러한 주제로 여러 번 말씀을

1월에 파나마에서 모임을 마친 후,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한 청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제임스 밀링톤 © PH 사진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부인인 캐티 크리스토퍼슨과 칠십인 회장단의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와 부인인 낸시 메이너즈가 동행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 순으로 방문했으며, 도중에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지역 회장단인 회장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 제1보좌인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제2보좌인 케빈 알던컨 장로와 합류했다.

메이너즈 장로는 또한 온두라스와 벨리트로 가서 그곳 지도자 및 회원들과 만났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에서 ‘청소년의 힘 대회’에 모인 수백 명의 청소년들과 산호세,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시티, 파나마시티에 각기 모인 선교사들, 그리고 신권 및 보조 조직 역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또한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과테말라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들 정부와 중요한 관계를 공고히 했다.

코스타리카에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청소년과 청년 독신들에게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알고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경전을 매일 읽고 영이 주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조셉 스미스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을 나눴다.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이 간증과 똑같은 간증을 받도록 축복을 선언합니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재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그분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과테말라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족을 이름으로써 우리는 지상에서의 가장 위대한 목적을 성취합니다.”라고 말하며

파나마 청소년들에게 “이 교회의 지도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깊이 관여하시는 지도자이시며 몸소 활발하게 그분의 교회를 이끄십니다.”라고 간증했다.

한 신권 지도자 대회에서는 바쁘게 여러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신권 봉사의 결과, 특히 개인의 개심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메이너즈 장로 또한 벨리츠와 온두라스에서 청년 독신 및 선교사 모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모임을 감리하며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이들 나라의 수백 명에게 조언과 영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 제이슨 스웨신이 이 기사를 기고했다.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으로 탈바꿈한 멕시코의 교회 고등학교

1월 29일, 멕시코시티에 있는 교회 소유 고등학교인 베네메리토 데 라스 아메리카스(Benemérito de las Américas)가 선교사 훈련원으로 개조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선교사 훈련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된 베네메리토 교정에서 1월 29일에 열린 모임에 참석하고 감리하며 말씀을 전했다. 베네메리토 학교가 2013년 6월에 학기를 마치면 이곳은 선교사 훈련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베네메리토 데 라스 아메리카스 시설은 40여 년 동안 기숙 학교로서 운영되어 왔기에 기숙사 및 기타 필요 제반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멕시코뿐 아니라 북, 중, 남미 기타 국가에서 봉사할 장로, 자매, 부부들을 훈련하게 될 것이다. 자국 내 스페인어 사용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미국 선교사들도 멕시코시티에서 훈련받게 될 수도 있다. 유타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를 위해 스페인어 훈련을 할 것이다.

음반 및 인터넷에서 성공을 거둔 태버나클 합창단

음반 업계 발행물인 최신 *빌보드*지 연말 결산호에 2012년 연말 순위가 실렸다. 순위 중 한 부문인 전통 클래식 앨범 아티스트 부문에서 태버나클 합창단이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와 함께 1위에 올랐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연말 결산 순위 5개 부문에 올랐으며 한 앨범 순위에는 두 차례나 올랐다. 전통 클래식 앨범 순위에서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과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가 *빌보드*지 연말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으며 2012년 연말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3백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3위와 9위에 올랐다.(앨범 *Glory! Music of Rejoicing*와 *This Is the Christ* 각각); 전통 클래식 앨범 임프린트 4위, 전통 클래식 앨범 라벨 5위, 클래식 크로스오버 앨범 12위(데이비드 아출레타와 협연한 *Glad Christmas Tidings* 앨범)

음반업계 성공에 더하여 합창단은 1월 17일에 불과 석 달 전인 2012년 10월 30일에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서 백만 뷰를 넘어섰다. 채널은 2012년 연말 기준으로 시청자가 채널을 본 총시간은 3,230,000분으로 추산된다. 이 채널 주소는 www.YouTube.com/user/MormonTabChoir이다.

말씀으로 양육됨

*리아호나*를 청취하면서 제 마음이 놀랄 정도로 고양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디오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한 시각 장애인 회원과 또 한 분의 운전기사, 그리고 읽기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나눠 왔습니다.

현재 저는 집에서 2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회 잡지를 들으며 버스를 타고 다니니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입니다. 연차 대회를 들을 때면 마치 제가 야곱 시대에 살며 온종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 받는](야곱서 6:7) 것처럼 느껴집니다.

프란시스코 플라비오 디아스 카르네이로, 브라질

영감과 동기를 받고 강화됩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사랑합니다! 올바른 길에 머물 영감과 동기를 *리아호나*에서 연습합니다. *리아호나*는 제가 청남에서 맡은 제 부름을 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려울 때나 마음이 가라앉을 때, 저는 몰몬경과 *리아호나*를 펼칩니다. 몰몬경과 *리아호나*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신다는 간증이 새로워집니다. 제임스 아론 에스 페레즈, 필리핀 세부

섬 주민들의 신앙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나는 최근에 미국을 떠나 마셜제도와 통가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은 감동스러웠다. 대체로 그들의 신앙은 끊임없이 변하는 서구 사회의 도덕성과 진리에 대한 정의에 물들지 않은 듯 보였다. 전에 통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한 존 에이치 그로버그(칠십인, 1976~2005) 장로님이 묘사하신 대로 섬 주민들의 신앙은 놀라웠다. 그들의 신앙은 속죄와 구원의 계획에 기초한다. 그래서 영으로 배운 것들에 대해 의심을 전혀 품지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태평양 제도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가 겪어 본 어떠한 생활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온화하게 흘러간다. 섬 주민들도 자동차,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스포츠, 다수의 여러 활동을 즐기지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문화권에 비해 그러한 것은 덜 부각되는 듯하다.

물론 섬 주민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도 나처럼 음식과 거처를 마련할 길을 찾아야 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시련의 압력에 동요되지 않고, 삶이 바쁘고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 있어도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나는 여러 차례 보았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주님의 손길을 인식한다. 칠십인인 데이비드 에스 벅스터 장로님(전 태평양 지역 회장)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들은 기적을 믿고,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남태평양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와 몇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쩌서 어떤



내가 만난 섬 주민들은 자신이 참되다고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의심을 떨쳐 버렸다.

사람들은 신앙을 강하게 유지하는 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품고 자신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걸까? 한때 간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쩌서 자신의 간증이 약해지거나 나약해지도록 놔 두는 것일까? 주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것을 볼 때 왜 사람들은 놀라는가?

아마도 답은 자신의 마음이 주님의 제단에 얼마나 확고히 놓여 있느냐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난 섬 주민들은 그러한 결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신앙을 확고한 기초인 구속주의 반석 위에 세움으로써 많은 섬 주민들은 더는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간증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그들은 참되다고 아는 것을 받아들였고 의심을 떨쳐 버렸다.

나도 그러한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싶다. 내 믿음에 의심이 들 때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명하신,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일들의 진실에 관해 알기 위하여 네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 보라.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교리와 성약 6:22~23) 이것을 기억하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은 순결하며 흐트러짐이 없다. 헌신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그 신앙은 “나는 이것을 안다.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을 준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을 믿는다면 그분의 권능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앙은 우리 믿음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나 피곤함, 불확실성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그분은 살아 계시다!”라고 말하게 된다. 나에게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